



삼일회계법인

# 부실채권(NPL) 시장 동향

Samil PwC NPL Center



January 2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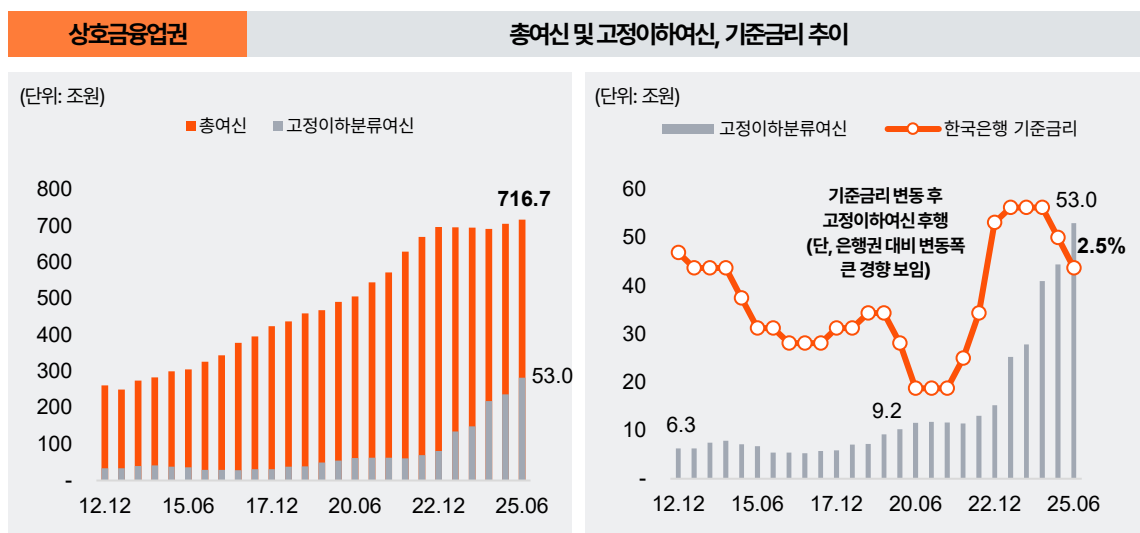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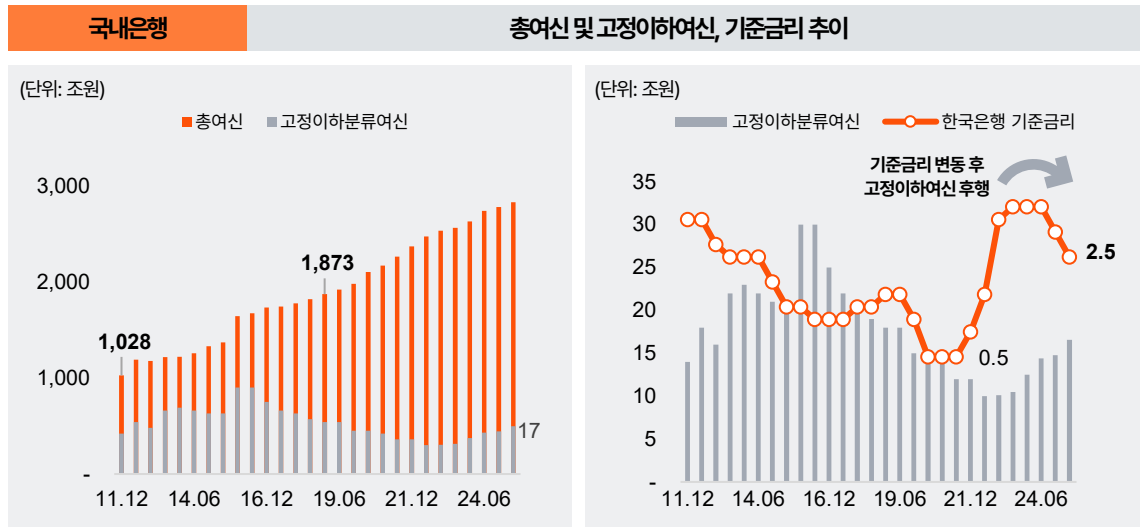
# Contents

<b>1</b>	<b>Executive Summary</b>	<b>3</b>
<b>2</b>	<b>부동산 시장 동향</b>	<b>6</b>
<b>3</b>	<b>부실채권 시장 동향</b>	<b>11</b>
<b>4</b>	<b>부실채권 투자자 동향</b>	<b>21</b>
<b>5</b>	<b>부실채권 매각가율 및 법원경매 추이</b>	<b>36</b>
<b>6</b>	<b>부실채권 정책동향</b>	<b>41</b>
<b>7</b>	<b>향후 전망 및 대응</b>	<b>45</b>

# Executive Summary

1

# 기준금리 인하에도 NPL 매각 물량 유지될 전망이다



## Summary

### ① 국내은행

- 총여신 규모 2012년 수준 대비 2.5배 이상 증가
- 고정이하여신 규모는 적극적인 건전성 관리 노력으로 2012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
- 한편, 더딘 경기 회복 및 주택 외 부동산 시장 침체 장기화에 따른 **한계치주 부실 현실화**로 고정이하여신 규모 확대 가능성 존재  
→ 2026년 상반기 부실채권 매각규모는 전년과 유사할 것으로 전망

### ② 상호금융업권

- 총여신규모 2012년 대비 2.5배 이상 증가  
→ 국내은행권과 유사한 증가율
- 고정이하여신 규모는 **2021년 말 약 12조에서 25년 6월 약 53조로 4.4배 급증**. 이는 수익성 제고를 위한 PF성 여신 취급 증가에 기인  
→ 2026년 자회사, NPL펀드 설정 등을 통한 건전성 관리 노력 및 외부매각 지속 추진 예상

- ① 국내은행 고정이하여신 확대 가능성
- ② 상호금융업권 시장매각 지속 추진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고물가지속 & 상호금융업권 부실증가로  
2026년에도 NPL 거래 규모 전년 수준 예상

(Source: 금융통계정보시스템, 행정안전부, PwC Analysis)

# 최근 시장 동향 및 2026년 상반기 시장 전망



2023년과 24년에 걸쳐 급증하던 국내 NPL 거래 규모는 2025년 들어 1금융권 기준 연간 기준으로는 소폭이나마 전년 대비 하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고물가/고환율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2026년에는 부동산 PF 부실 구조조정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여 2026년 상반기 NPL 매각 시장 규모는 2025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금융권 NPL 거래규모는 2025년 4분기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구분	2025년 동향	2026년 상반기 전망
<b>공급</b> (금융기관)	① 은행권 역대 최대 매각 규모 지속 (2024년 8.3조, 2025년 8.1조) ② 자산유동화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호금융기관 중앙회를 중심으로 유동화방식 NPL 대외 매각 지속 추진	① 2026년 1분기 매각의향 규모 전년도 유사(2조원 내외), 상반기 내 약 4조원 전후 매각 예상 ② 상호금융기관의 NPL 자회사 활성화 지속, 대외매각은 PF, 브릿지론 등 공동대출 위주로 제한적 추진 예상
<b>수요</b> (NPL 투자자)	① 인수자금 조달로 전업사의 레버리지비율 급증 ② 하반기 RWA 규제 등으로 금융지주계열 전업사의 투자여력 부족 ③ 자산운용사의 KAMCO 및 상호금융중앙회의 LP 참여 펀드 설립 지속 ④ (상호금융계열 자회사 외) 투자자 신규 진입 주춤	① 금융지주 자회사 레버리지비율 상승, 환율 상승에 따른 RWA 규제 상황 악화로 제한적이고 선별적 인수 기조 지속 예상 ② 기 매입자산 회수기간 지연에 따른 보수적인 평가기조로 입찰가율은 당분간 하락 전망 ③ 신규 투자자는 PF, 브릿지론 등 건당 자산규모가 비교적 큰 특수자산에 한하여 진입 예상
<b>정부 및 정책금융기관</b>	① 코로나19 피해 개인연체채무자 신용지원 협약 연장 (~25.12) ② 새출발기금 협약 연장 (~26.12) ③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24.10) 및 계도기간 종료 (25.4) ④ 새도약기금 출범 (25.10)	① 코로나19 피해 개인연체채무자 신용지원협약 추가 연장 (~26.12) ② 새출발기금 협약 지속 (~26.12) ③ 새도약기금 신용회복지원 협약 양수도 진행 (~26 하반기)

# 부동산 시장 동향

# 2

2.1 거시지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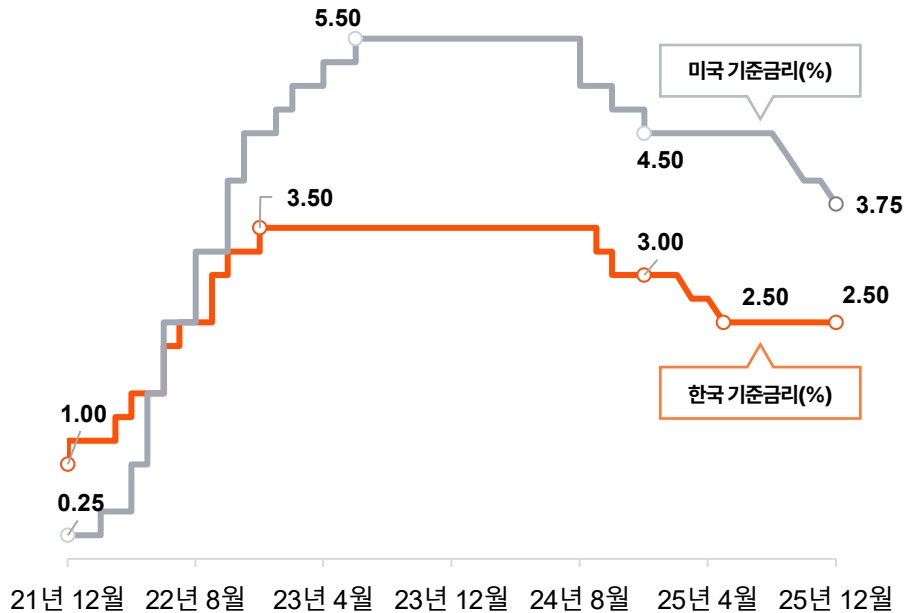
2.2 부동산 주요 지표 동향

# 기준금리 인하 및 소비자물가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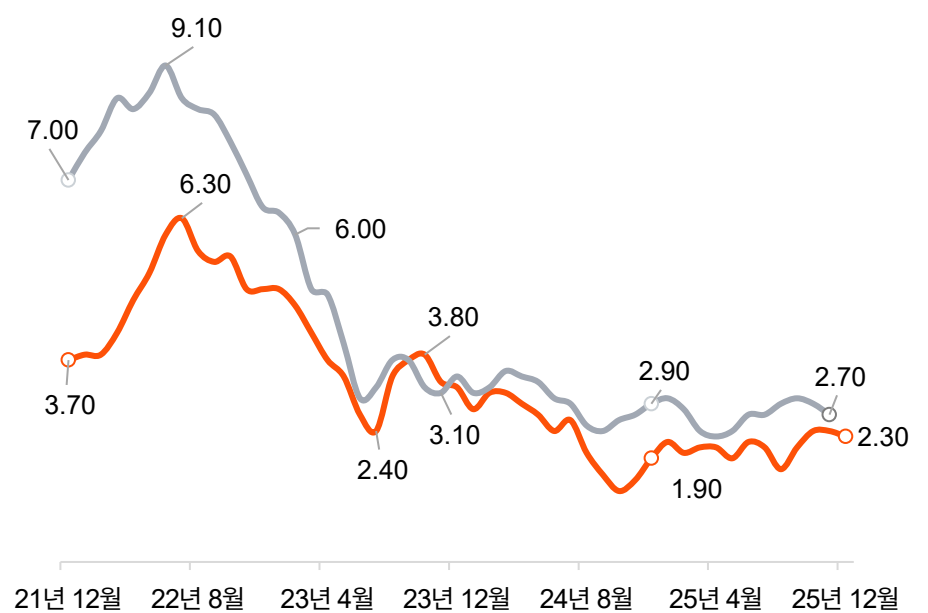


2022년 이후 기준금리 인상과 더불어 부동산 시장은 급격하게 둔화되었습니다. 24년 이후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되었으나, 최근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및 물가상승을 감소에도 불구하고 최근 고환율상황으로 인해 국내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한-미 기준금리 변동 추이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한-미 소비자물가지수(CPI) 변동 추이



- ① 한미 기준금리 역전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② 기준금리 인하시 환율 상승에 따른 외환유출 및 인플레이션 직면 위험
- ③ 각국 중앙은행 초저금리 시대 회귀 어려움 표명하고 있는 상황 → 과거 저금리 수준으로의 회귀 기대는 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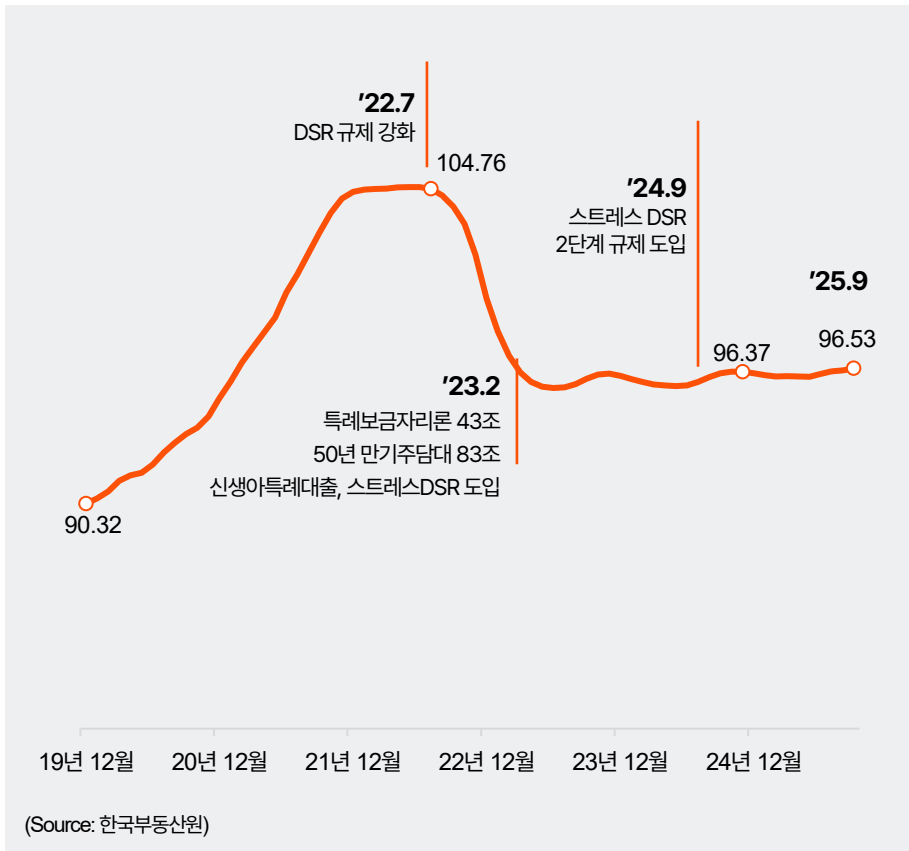
(Source: 한국은행, FOMC, 미국 고용통계국)

# 주택 매매가격 지수 유지 및 거래량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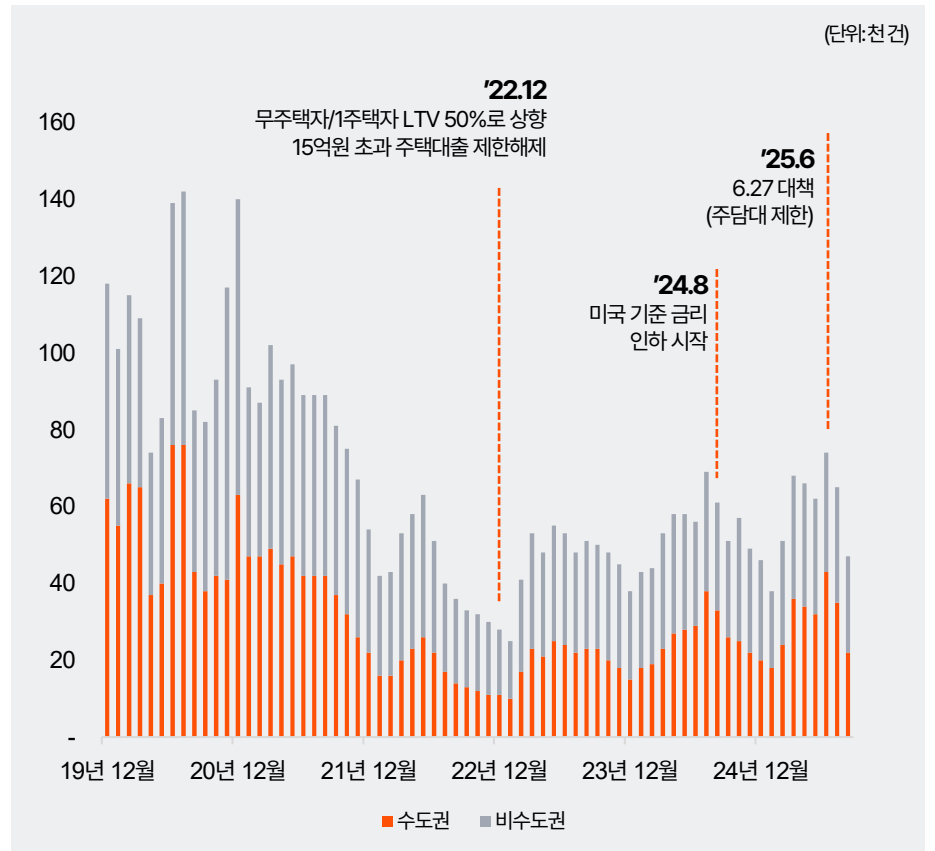


2023년 이후로 종합주택 매매가격 지수는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각 지역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기준금리 인하 정책이 재개되었지만 스트레스 DSR 등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 및 거래제한 정책으로 코로나19 이전 거래량은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합주택 매매가격 지수(2021.06=100)



주택매매 거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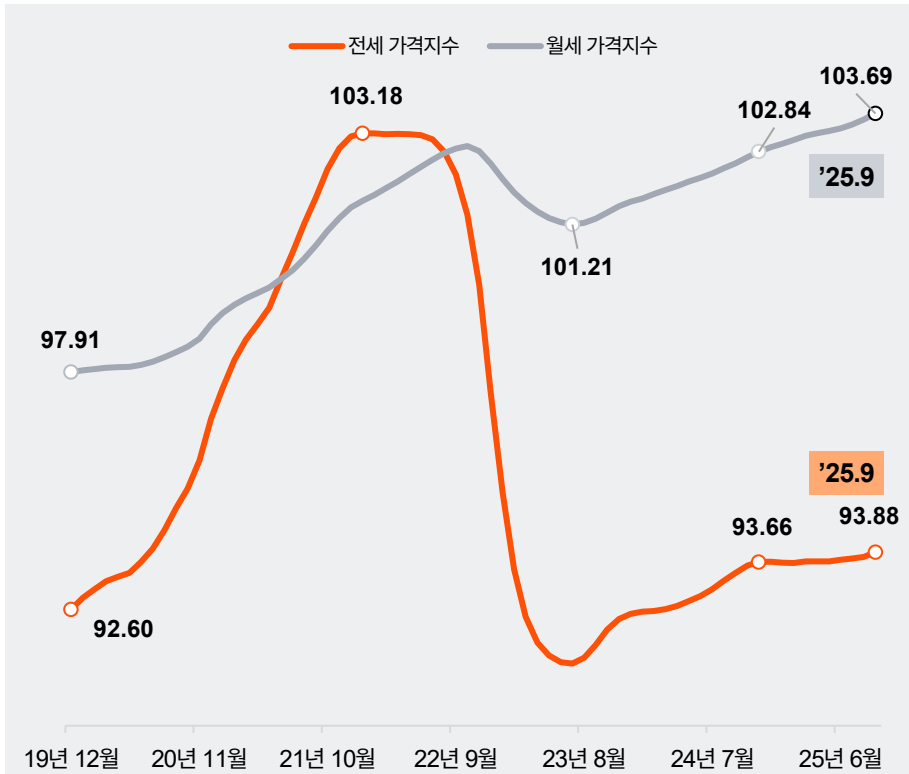


# 주택 월세가격 지수 상승 및 월세 비중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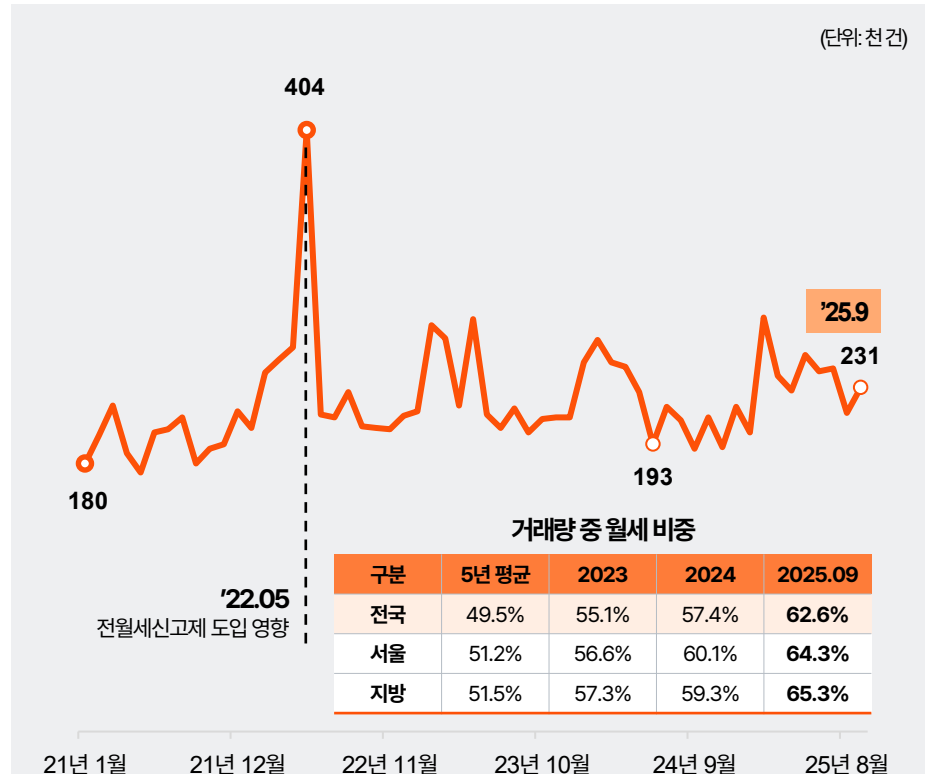
정부의 대출규제로 인한 전세대출 제한·전세사기 등으로 월세 임차수요가 증가하면서 월세가격 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월세 거래량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한편, 월세 계약의 비중은 최근 3년간 전국 기준 약 55%에서 63%까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종합주택 전월세가격 지수(2021.06=100)



(Source: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

전·월세 거래량 추이



# 상업용 부동산 거래량 감소 및 공실률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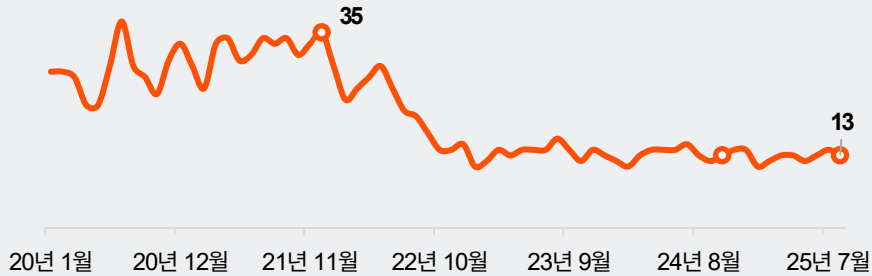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침체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더딘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택근무 감소에 따라 오피스 임대수요는 견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온라인 유통시장의 성장으로 인해 상가 선호도는 과거 수준으로의 회귀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 상업용 부동산 거래량 및 공실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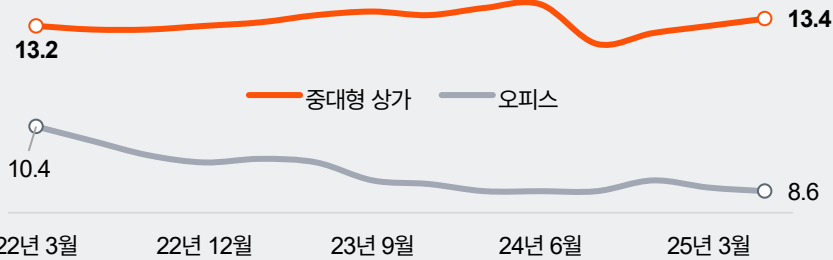
① 상업용 부동산 거래량 감소

(단위: 천건)



② 공실률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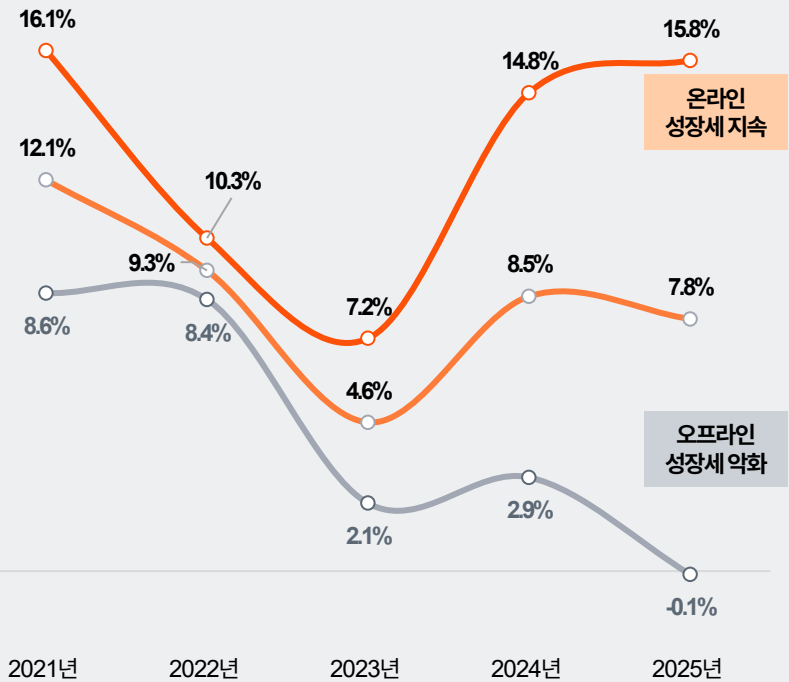
(단위: %)



(Source: 한국부동산원)

## 주요 유통업체 매출 증감률 추이(전년 동기 대비, 상반기 기준)

전체 오프라인 온라인



(Source: 산업통상자원부)

# 부실채권(NPL) 시장동향

# 3

3.1 거시 시장지표

3.2 제1금융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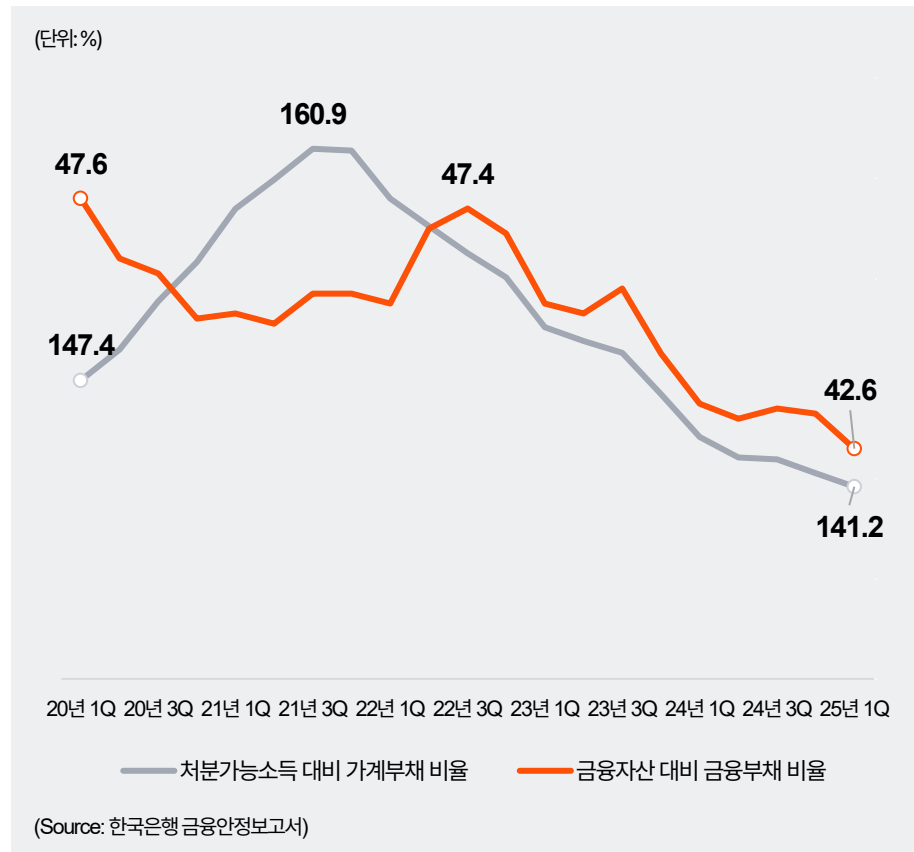
3.3 비은행 금융기관

# 가계 채무상환부담 지속 및 가계대출 연체율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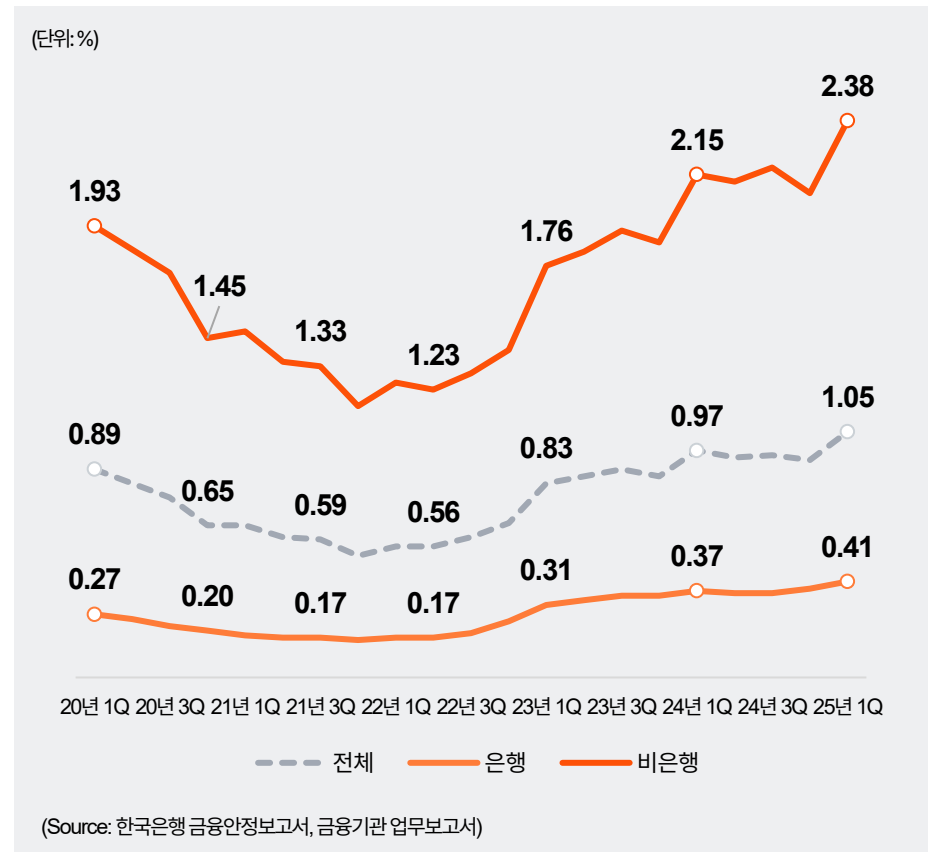


채무상환부담 지표는 2021년 3분기 이후 감소하고 있지만 가계대출 연체율은 2022년 하반기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은행권보다는 상대적으로 채무상환부담이 큰 비은행권의 연체율 상승폭이 두드러집니다.

채무상환부담 지표



가계대출 연체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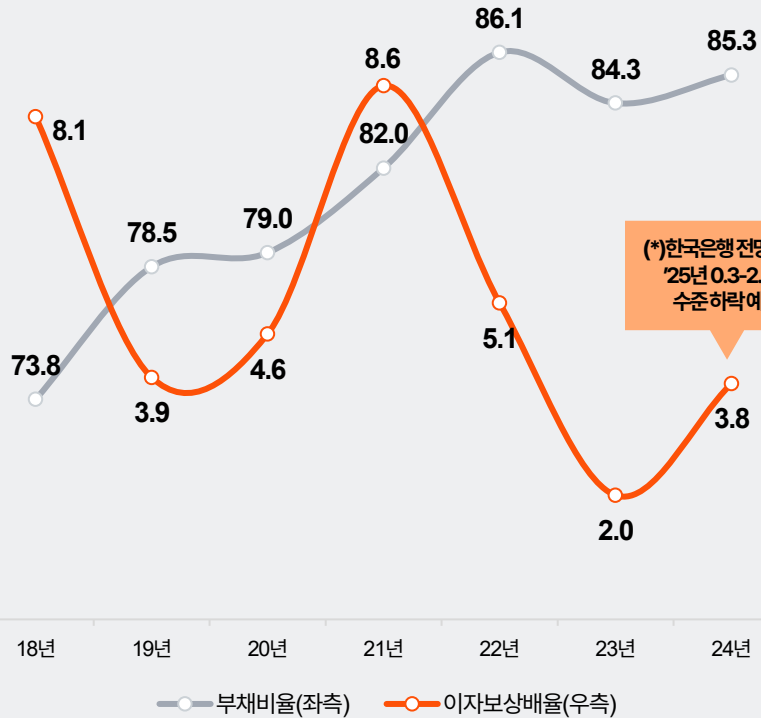
# 기업 안정성 및 이자지급능력 악화 기업대출 연체율 상승



2024년 기업 부채비율은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하였고, 이자보상배율은 전년 대비 상승했음에도 이자보상배율이 1을 하회하는 취약기업 비중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2022년 하반기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 기업 안정성 및 이자지급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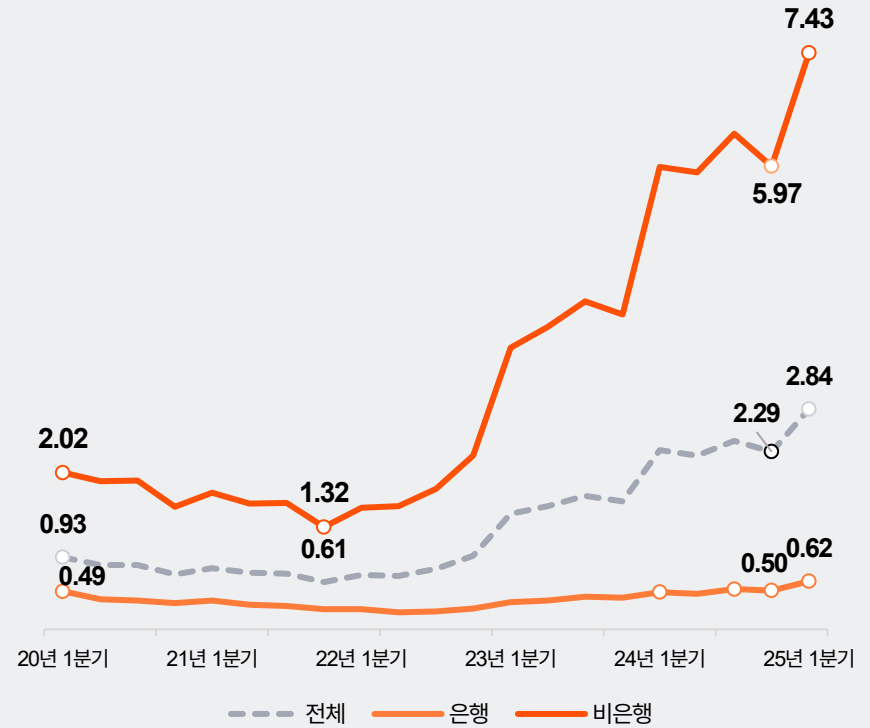
(단위: %)



(Source: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VALUE Search)

## 기업대출 연체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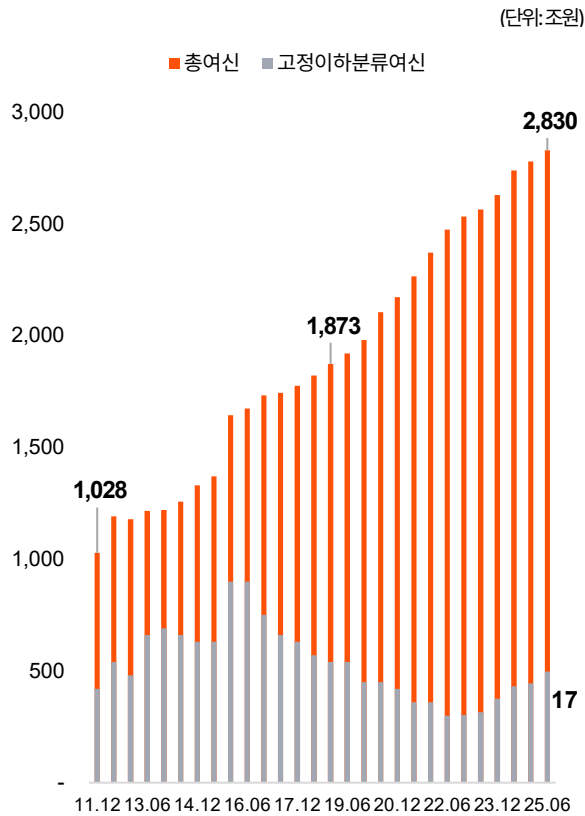
(Source: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 제1금융권 - 총여신 및 고정이하여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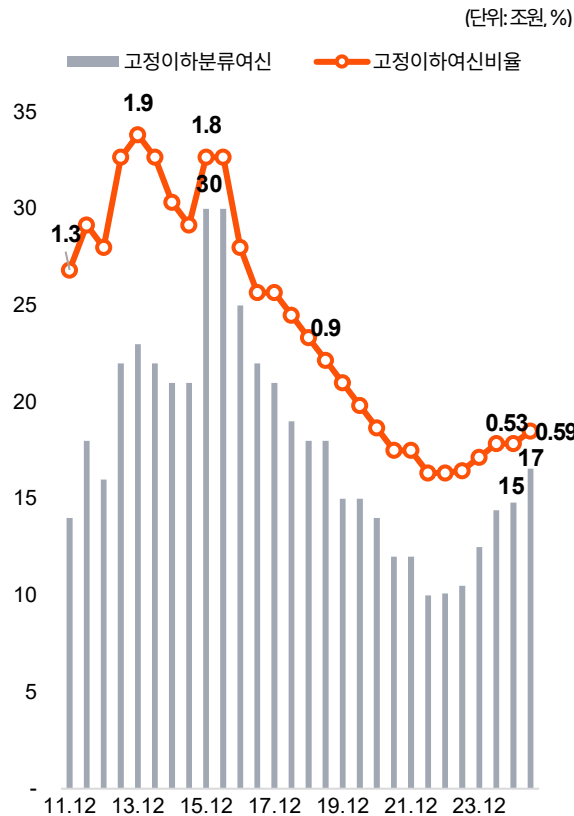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2023년 이후 금리상승과 부동산시장 하락 영향으로 고정이하여신 규모 및 비율 모두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최근 기준금리가 소폭 인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누적된 상환 부담으로 인해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지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총여신 및 고정이하 여신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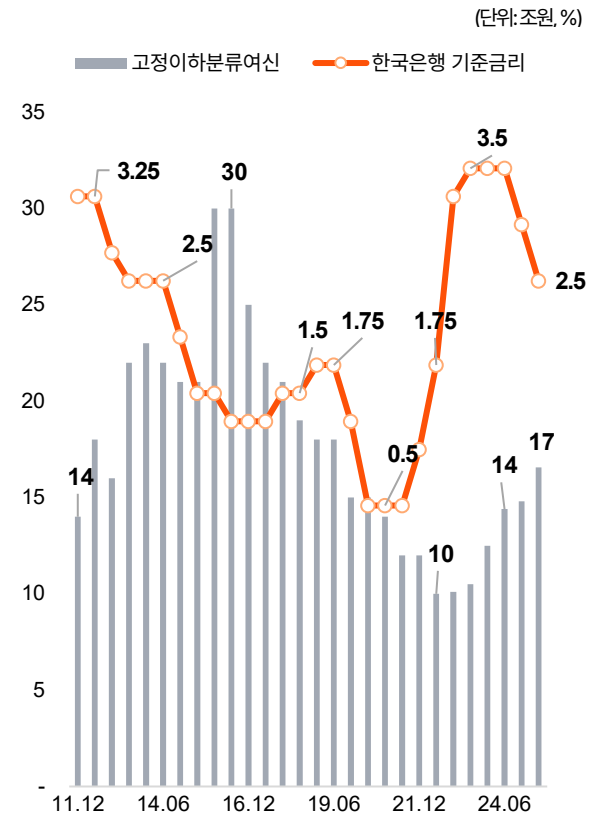


(Source: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고정이하여신 비율 추이



고정이하 여신 대비 기준금리 변동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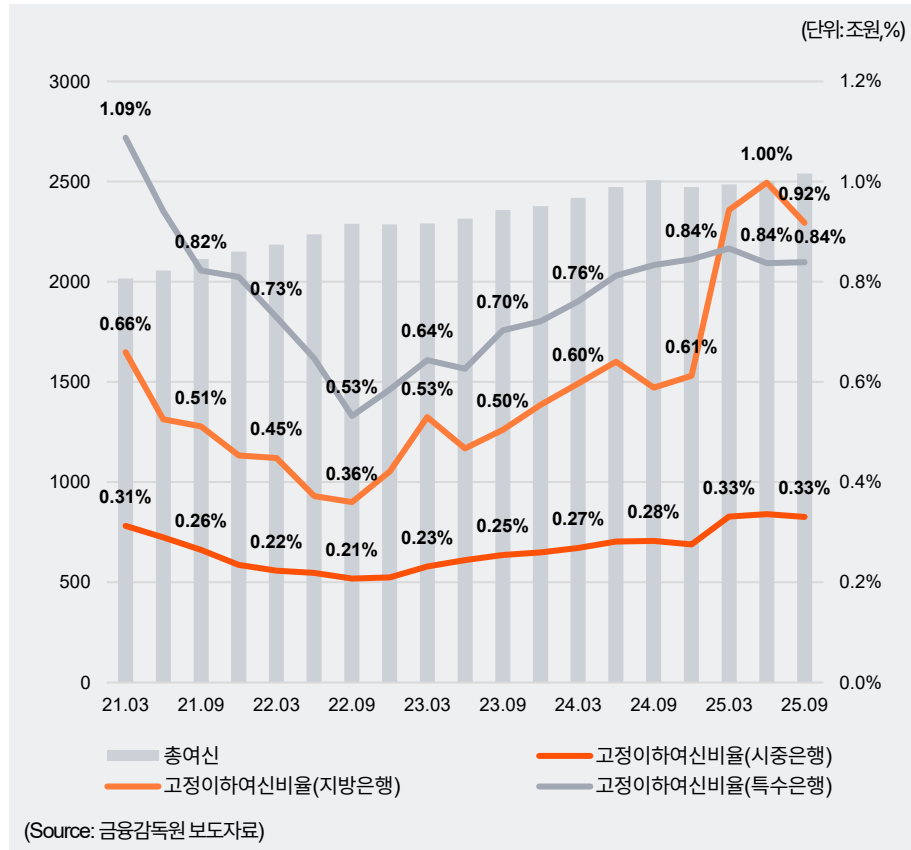


# 제1금융권 - 부실채권 비율 및 정리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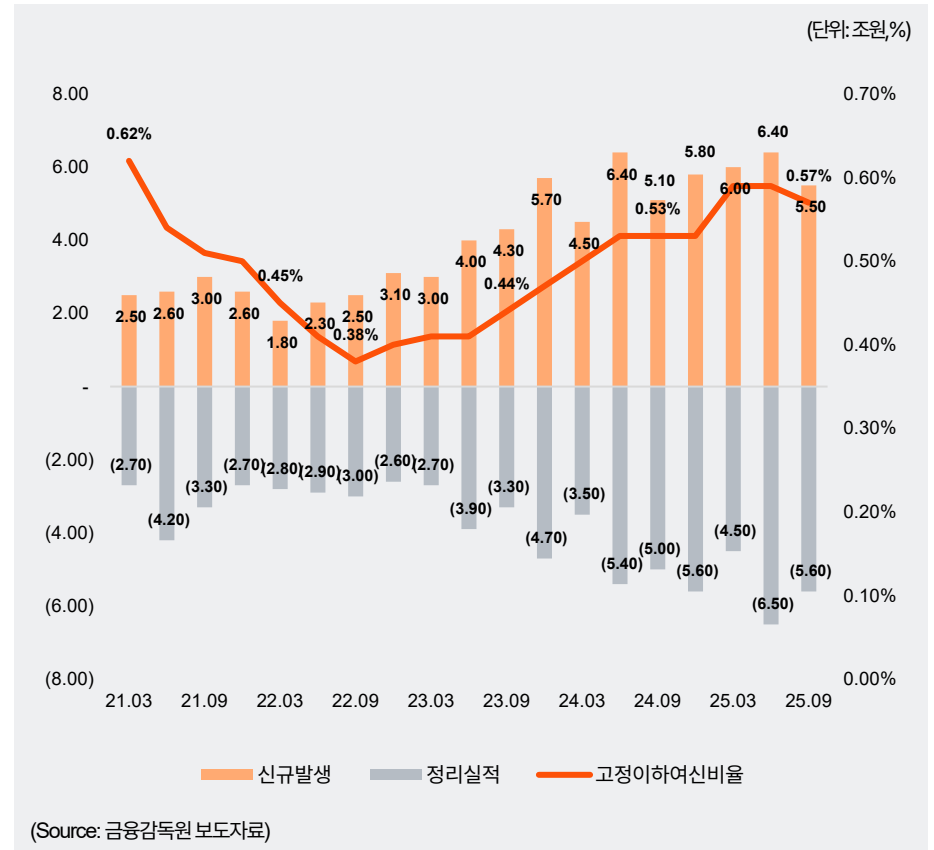


고정이하여신비율은 특수은행(산업, 기업, 농협, 수협), 지방은행, 시중은행(국민, 신한, 우리, 하나) 순으로 높은 모습을 보여왔으나 2025년에는 지방은행이 특수은행보다 높아졌습니다. 적극적인 정리와 신규 발생 증가세 둔화로 국내 은행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상승세가 꺾인 모습입니다.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추이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발생 및 정리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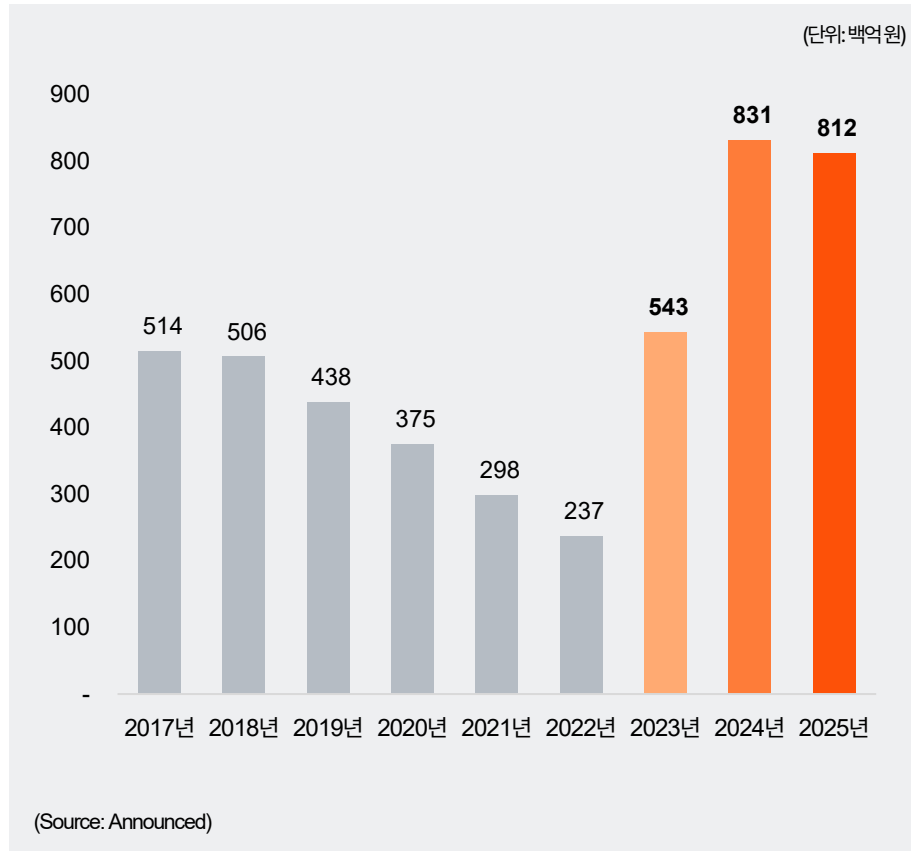


# 제1금융권 - 부실채권 매각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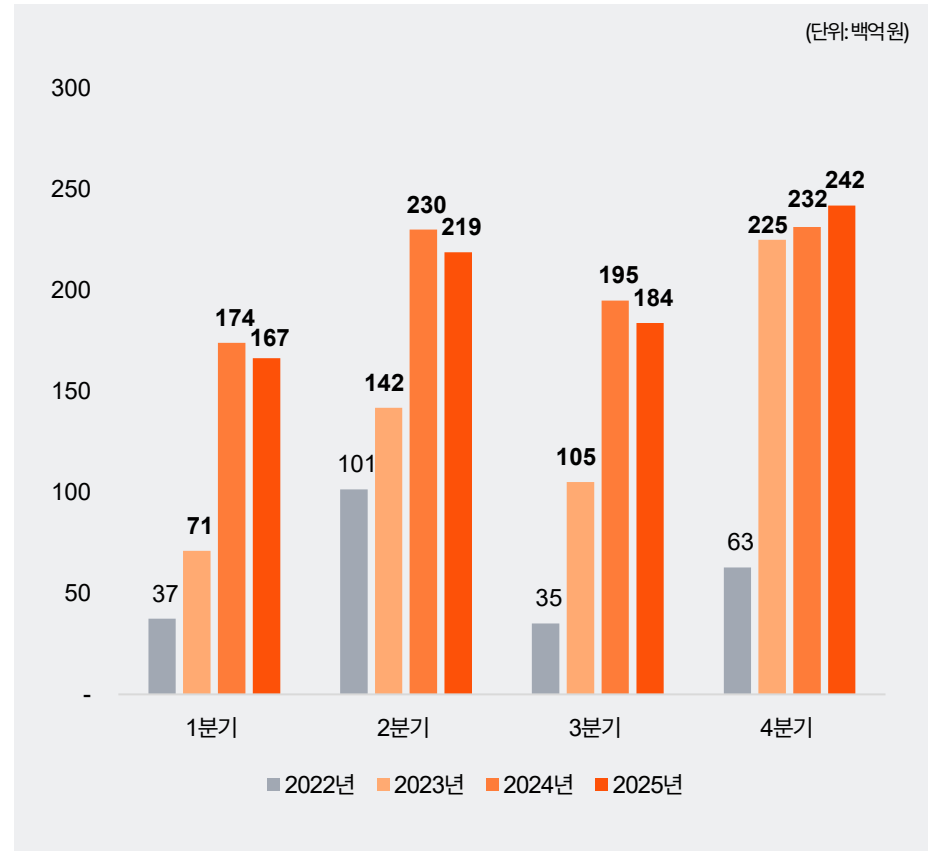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매각물량은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23년부터 시작된 연체율 증가에 따른 적극적인 부실채권 매각으로 2024년 OPB기준 총 8.3조원이 매각되었으며, 2025년에는 총 8.1조원의 부실채권이 매각되었습니다.

국내은행 부실채권 매각규모 (연도별)



국내은행 부실채권 매각규모 (분기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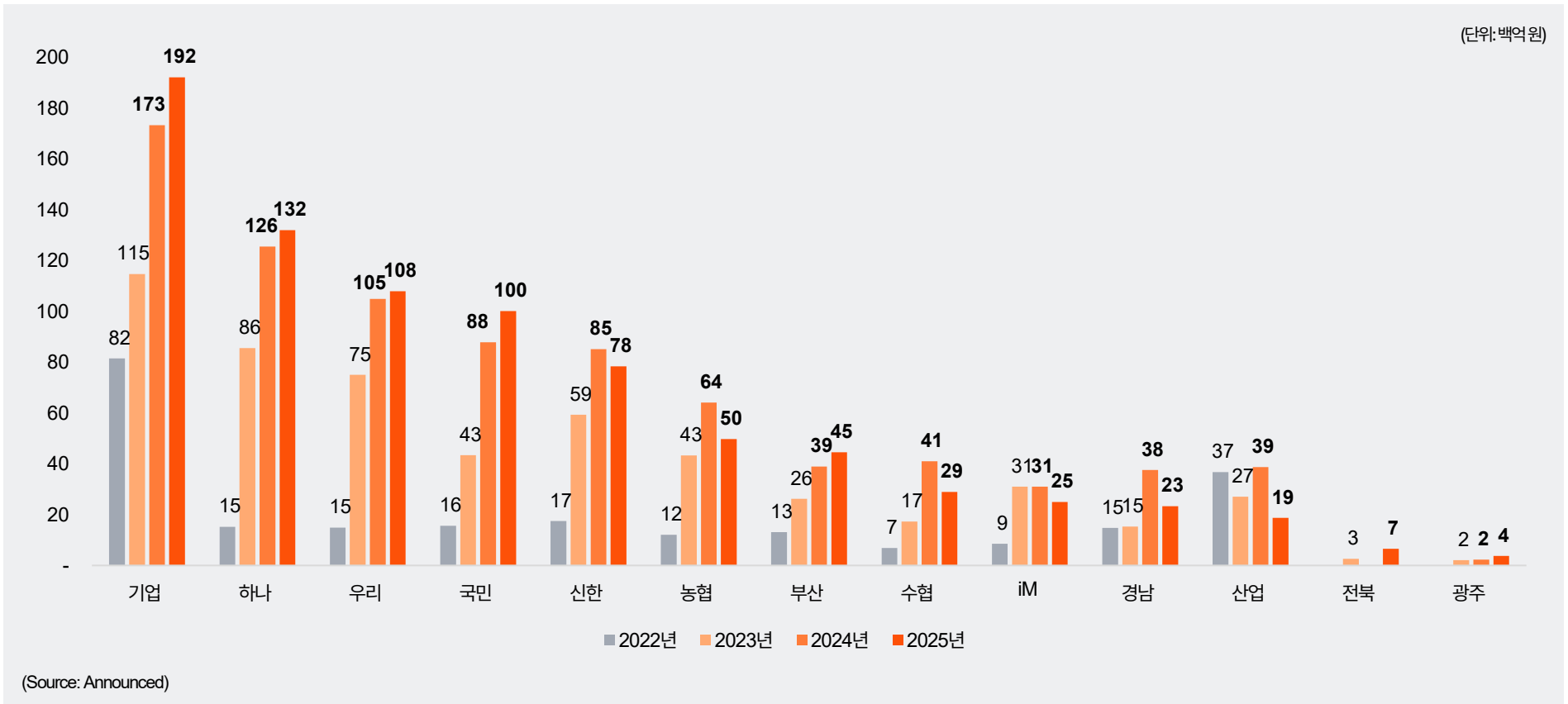


# 제1금융권 - 금융기관별 매각규모



각 금융기관별로 살펴보면, 시중은행(국민, 신한, 우리, 하나)의 매각규모 증가가 두드러졌습니다. 기업은행(1.9조원), 하나은행(1.3조원), 우리은행(1.08조원), 국민은행(1조원)은 2025년 중 OPB 기준 1조원 이상의 부실채권을 매각하였습니다.

금융기관별 매각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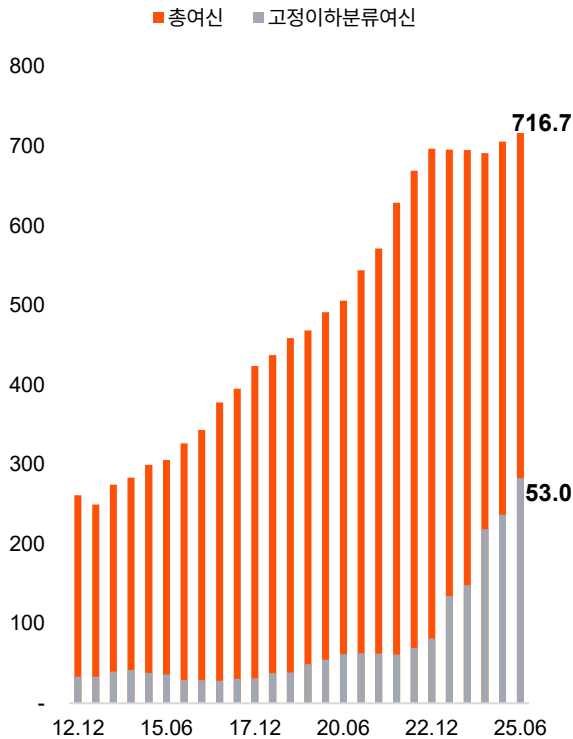
# 상호금융기관 - 총여신 및 고정이하 여신 추이



상호금융기관의 총여신 규모는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5년 6월 기준 716.7조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총여신 대비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2%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3년 이후 급격하게 상승하여 2025년 6월말 기준 7.4% 를 기록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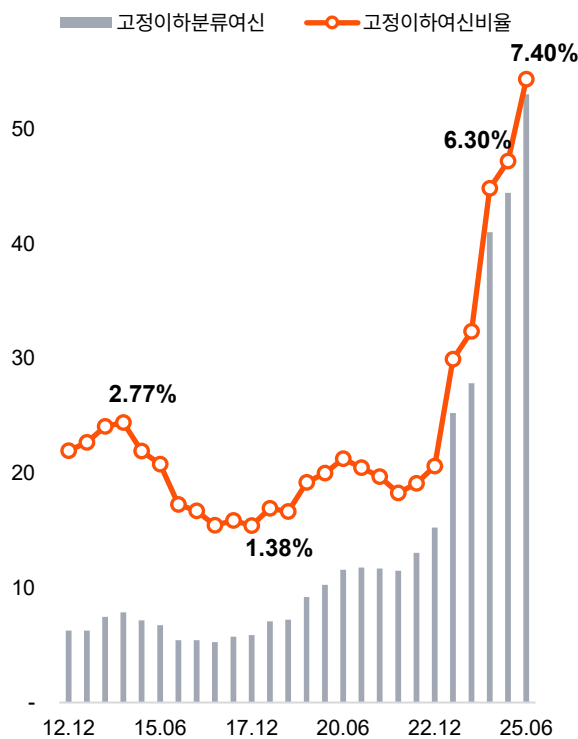
총여신 및 고정이하 여신 규모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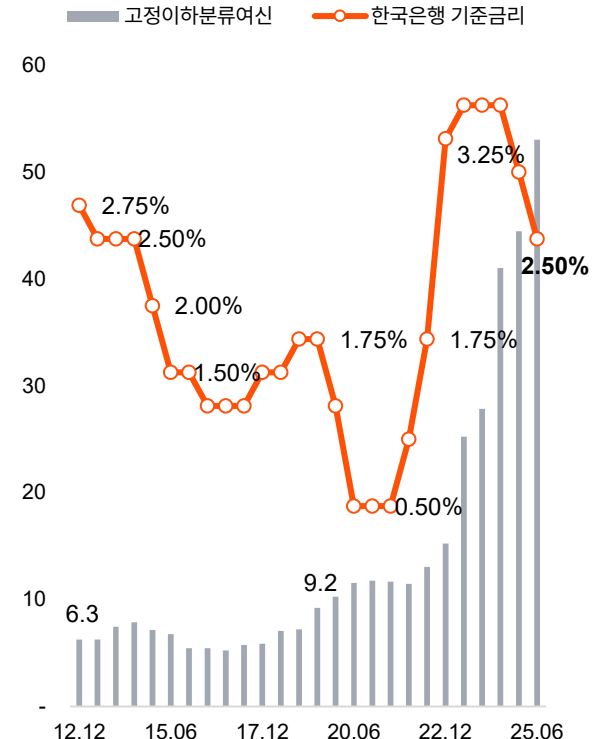
고정이하여신 비율 추이

(단위: 조원, %)



고정이하 여신 대비 기준금리 변동 추이

(단위: 조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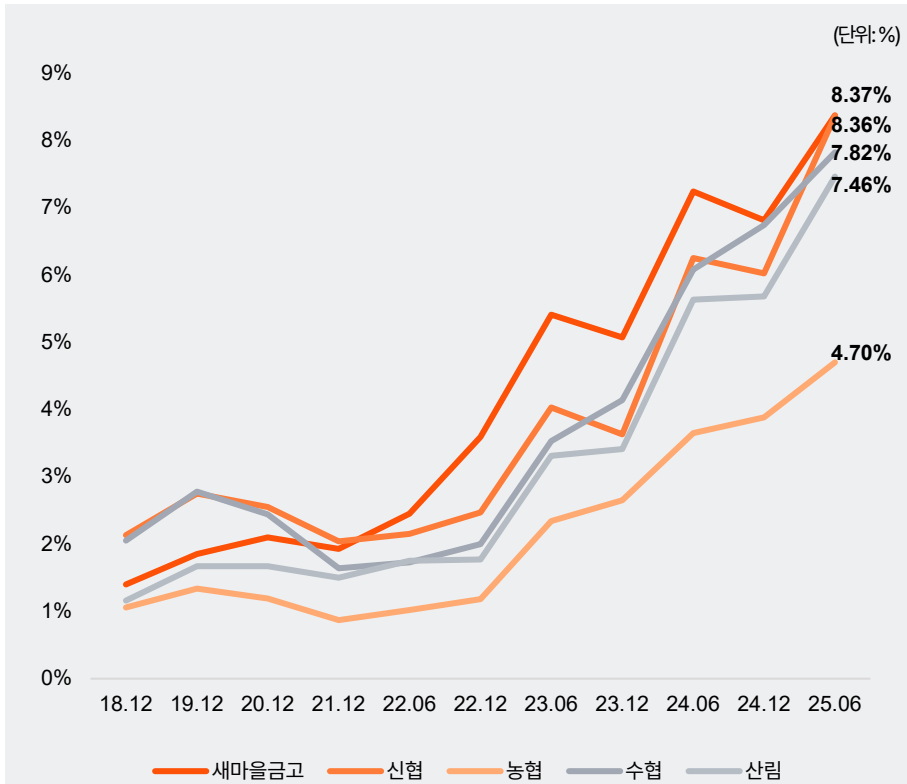
(Source: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상호금융기관 건전성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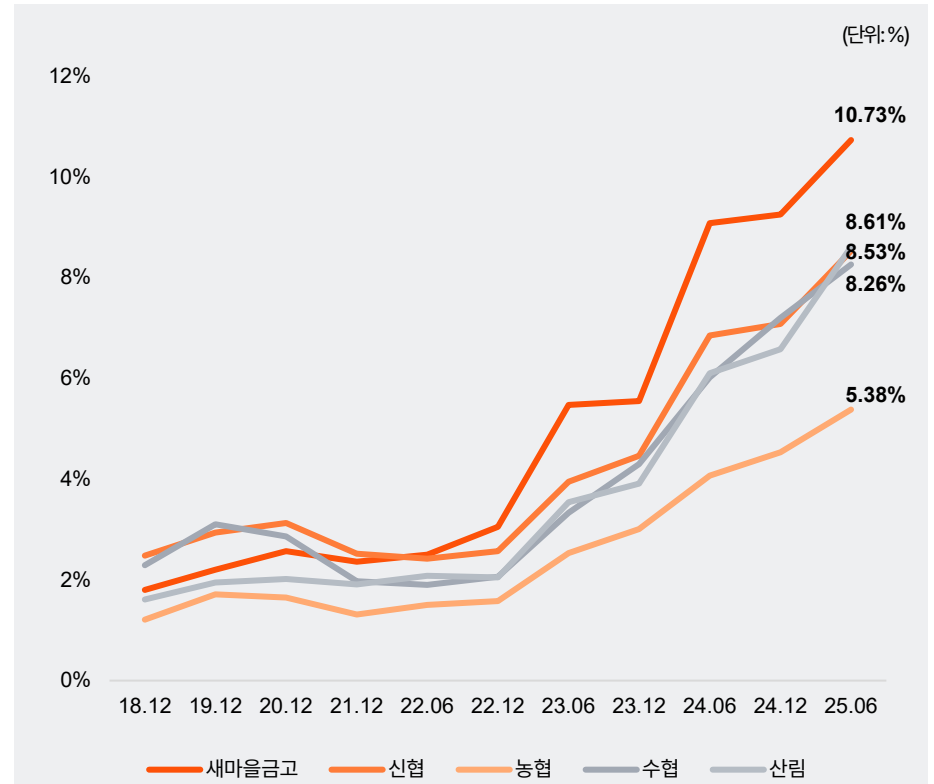
PF 대출 부실화 등으로 모든 상호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지표는 빠른 속도로 악화되어 왔습니다. 각 상호금융기관에서는 유동화방식을 통해 부실채권 일괄매각을 추진하는 한편 부실채권매입을 목적으로 하는 자회사나 신규 펀드를 설립하며 자산건전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별 대출 연체율 추이



(Source: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기관별 고정이하여신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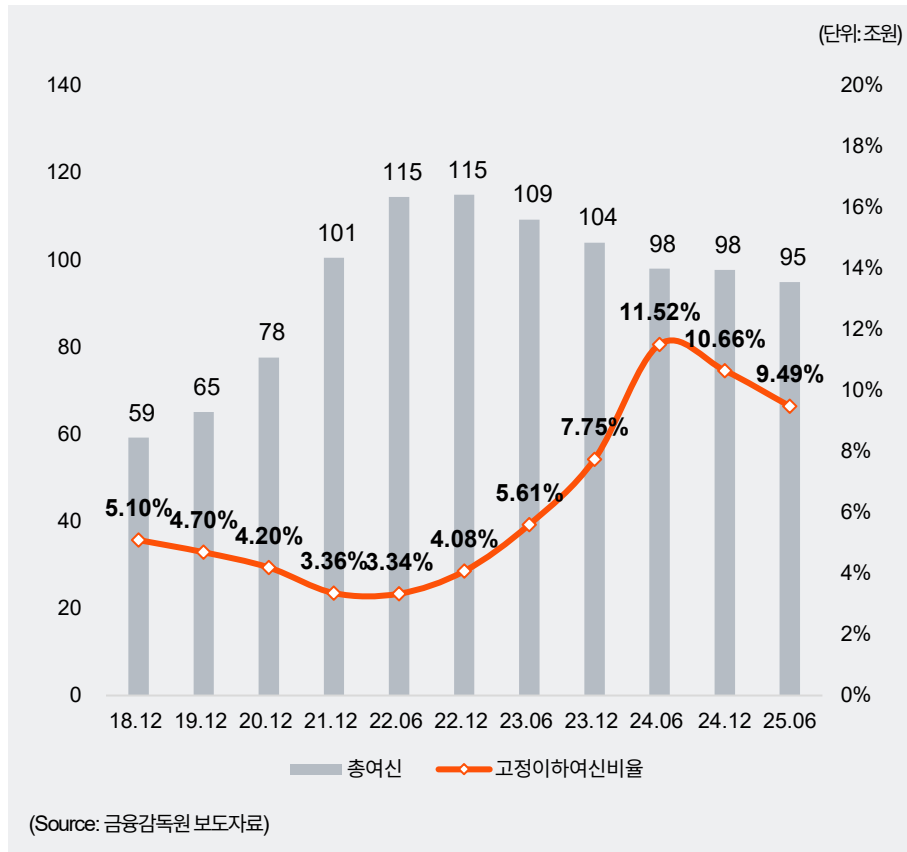
(Source: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저축은행 건전성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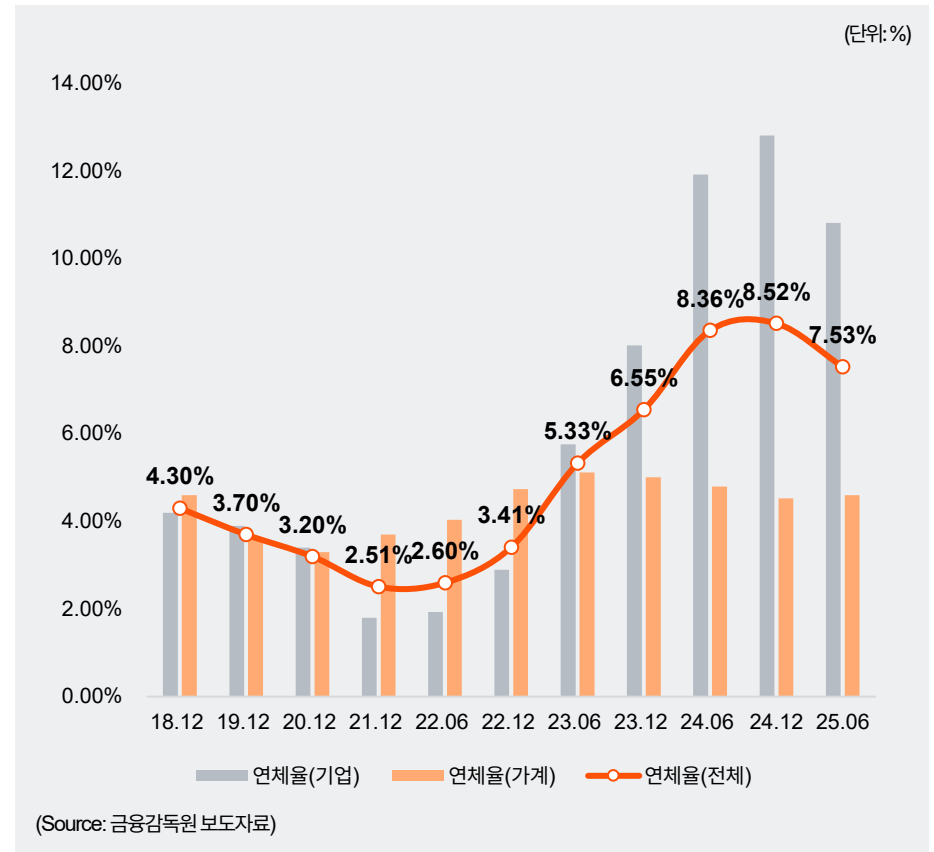


보수적인 대출 확장 기조에 따라 2022년까지 지속 증가하던 총여신잔액은 이후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 말까지 큰 폭으로 증가하던 연체율 및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25년 들어 감소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저축은행 총여신 및 고정이하여신비율



저축은행 대출유형별 연체율



# 부실채권(NPL) 투자자 동향

# 4

4.1 투자자별 매입채권 규모

4.2 투자자별 참여 및 낙찰현황

4.3 주요 투자자동향

# 제1금융권 투자자별 매입규모 (1/2)



2021년 이후 5개년 간 누적 인수물량은 연합자산관리가 4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하나F&I (17.6%)와 대신F&I (15.6%) 순서이며, 2024년 이후 금융지주 자회사인 하나F&I와 우리금융F&I의 점유율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자별 부실채권 인수규모 (2021년~)

(단위: 건, 억원)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5개년 누적		
	낙찰건	OPB	OPB%	낙찰건	OPB	OPB%	낙찰건	OPB	OPB%	낙찰건	OPB	OPB%	낙찰건	OPB	OPB%	낙찰건	OPB	OPB%
연합자산관리	14	11,664	39.2%	19	12,737	53.8%	23	20,173	37.1%	39	37,656	45.3%	40	37,142	45.8%	135	119,372	43.9%
하나F&I	15	9,405	31.6%	7	2,987	12.6%	17	12,539	23.1%	8	12,330	14.8%	10	10,500	12.9%	57	47,761	17.6%
대신F&I	6	3,053	10.2%	5	2,510	10.6%	6	6,431	11.8%	14	14,179	17.1%	21	16,305	20.1%	52	42,477	15.6%
키움F&I	5	3,899	13.1%	3	1,407	5.9%	6	6,027	11.1%	11	10,577	12.7%	9	8,717	10.7%	34	30,626	11.3%
우리금융F&I <sup>(*)</sup>	3	1,764	5.9%	6	3,823	16.1%	9	6,733	12.4%	7	8,118	9.8%	7	5,096	6.3%	32	25,535	9.4%
유진자산운용	-	-	0.0%	-	-	0.0%	2	1,821	3.4%	-	-	0.0%	1	948	1.2%	3	2,770	1.0%
KCLAVIS자산운용	-	-	0.0%	-	-	0.0%	-	-	0.0%	-	-	0.0%	7	1,625	2.0%	7	1,625	0.6%
KCLAVIS&BNK자산운용	-	-	0.0%	-	-	0.0%	-	-	0.0%	-	-	0.0%	1	482	0.6%	1	482	0.2%
미래에셋자산운용	-	-	0.0%	-	-	0.0%	-	-	0.0%	1	131	0.2%	-	-	0.0%	1	131	0.0%
이지스자산운용	-	-	0.0%	1	227	1.0%	1	613	1.1%	-	-	0.0%	-	-	0.0%	2	840	0.3%
기타	-	-	0.0%	-	-	0.0%	-	-	0.0%	1	92	0.1%	1	347	0.4%	2	439	0.2%
<b>합계</b>	<b>43</b>	<b>29,785</b>	<b>100.0%</b>	<b>41</b>	<b>23,691</b>	<b>100.0%</b>	<b>64</b>	<b>54,337</b>	<b>100.0%</b>	<b>81</b>	<b>83,082</b>	<b>100.0%</b>	<b>97</b>	<b>81,161</b>	<b>100.0%</b>	<b>326</b>	<b>272,056</b>	<b>100.0%</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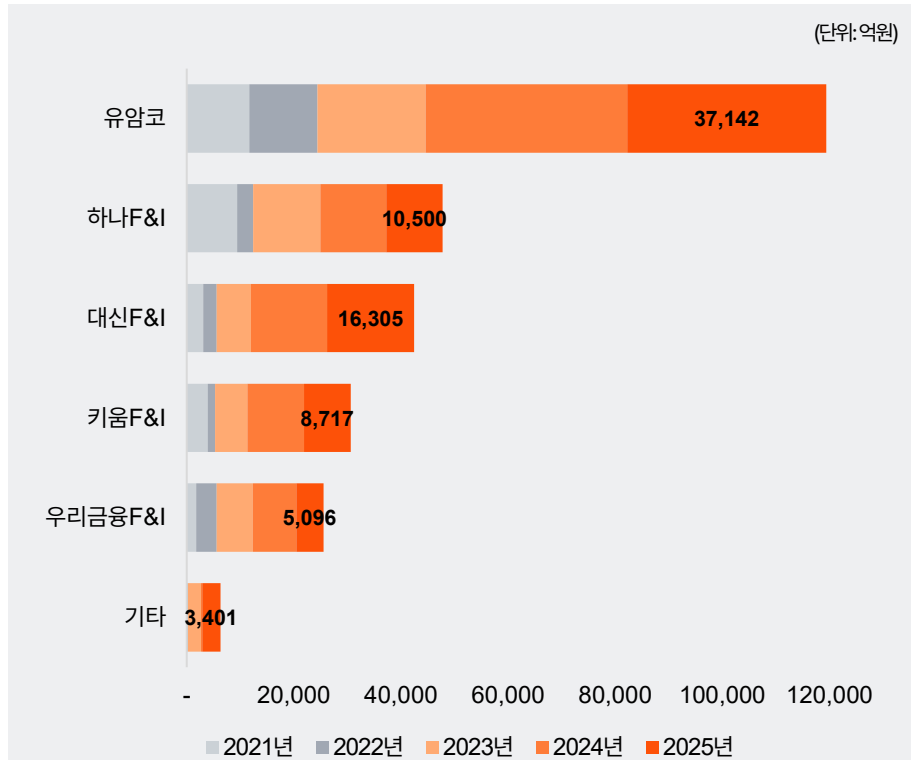
(\*) 2021년 매입은 우리종합금융의 매입실적  
(Source: Announced)

# 제1금융권 투자자별 매입규모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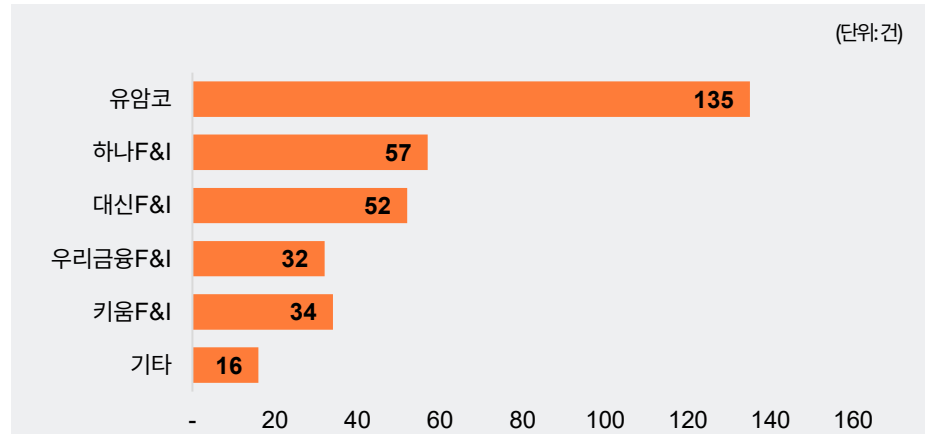
2025년은 전년도에 이어 하나F&I와 우리금융F&I의 M/S감소가 계속되는 가운데 연합자산관리의 매입비중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대신F&I의 약진이 두드러졌습니다.

투자자별 부실채권 인수규모 (2021년~)



(Source: Announced)

투자자별 낙찰건수 (2021년~)



\* 투자자별 Market Share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유암코	39.2%	53.8%	37.1%	45.3%	45.8%
하나F&I	31.6%	12.6%	23.1%	14.8%	12.9%
대신F&I	10.2%	10.6%	11.8%	17.1%	20.1%
키움F&I	13.1%	5.9%	11.1%	12.7%	10.7%
우리금융F&I (*)	5.9%	16.1%	12.4%	9.8%	6.3%
기타	0.0%	1.0%	4.5%	0.3%	4.2%

(\*) 우리금융F&I는 우리종합금융과의 합산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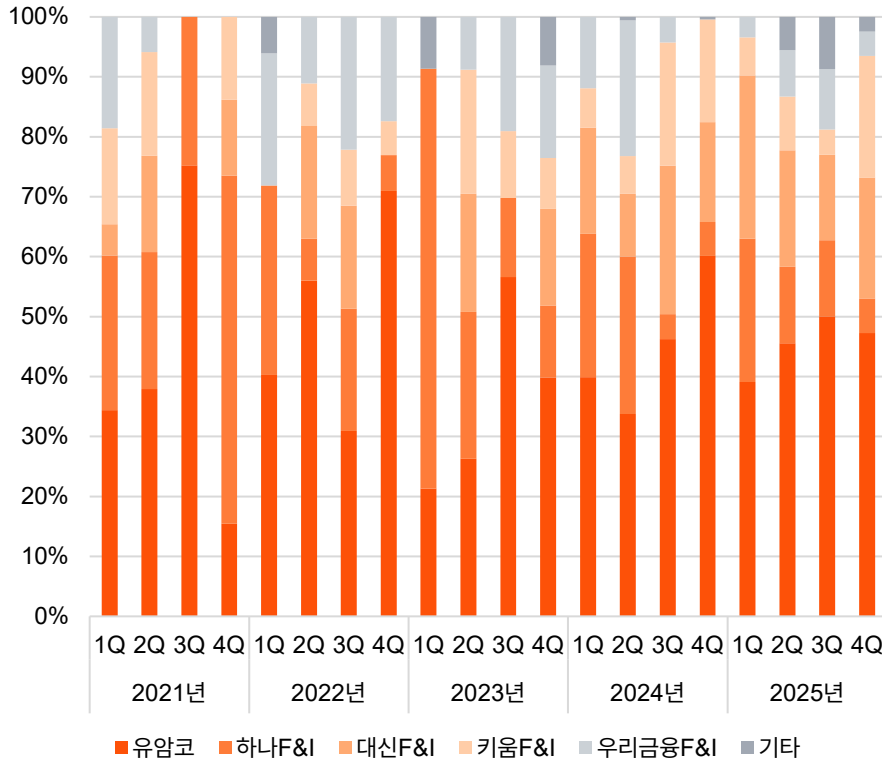
(Source: Announced)

# 제1금융권 투자자별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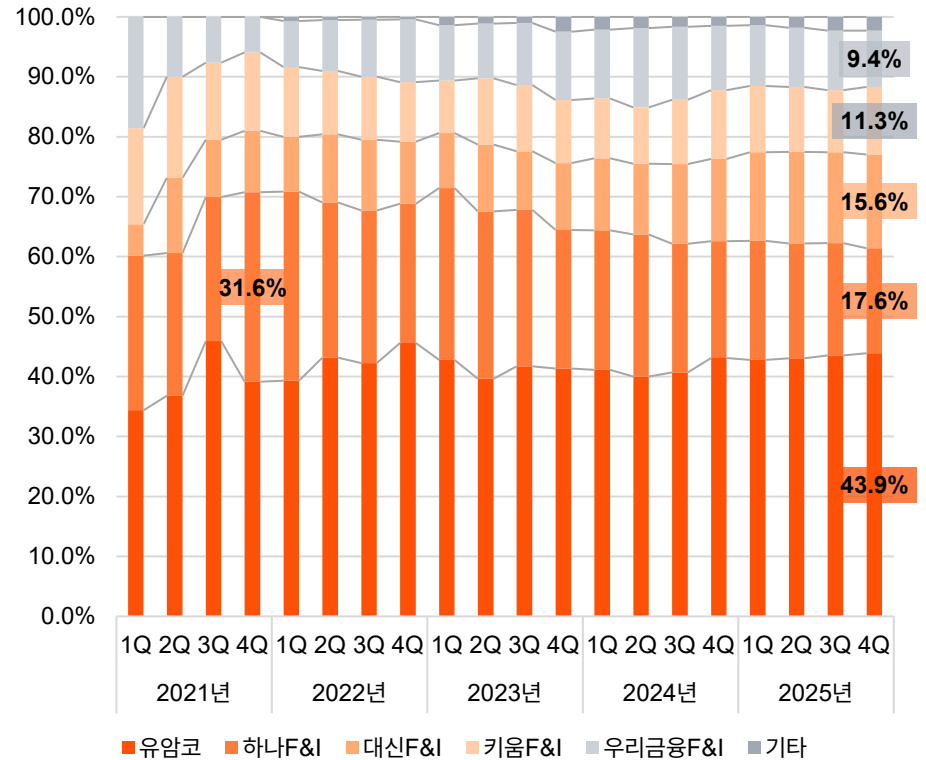


2021년 이후 유암코가 40% 초반 수준의 누적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하나F&I는 2021년 말 31.6%의 점유율을 기록하였으나 2025년 말 기준으로는 17.6%수준까지 감소하였습니다. 그 외 대신F&I, 우리금융F&I, 키움F&I가 10% 초중반의 점유율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별 점유율 - 분기별



투자자별 점유율 - 누적 (2021년 이후)



(Source: Announced)

# 투자자별 참여 및 낙찰현황



2025년 총 97개 Pool이 공개입찰방식으로 매각되었으며, 투자자별로는 연합자산관리가 91개 Pool에 참여하여 40개 Pool을 인수하였고, 대신F&I가 51개 Pool 참여하여 21개, 키움F&I가 34개 Pool 참여하여 9개의 Pool을 인수하였습니다.

투자자별 부실채권 참여 및 인수 현황 (2025년)

구분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산업		농협		수협		경남		iM		부산		전북, 광주		합계		
	참여	낙찰	참여	낙찰	참여	낙찰	참여	낙찰	참여	낙찰	참여	낙찰	참여	낙찰	참여	낙찰	참여	낙찰	참여	낙찰	참여	낙찰	참여	낙찰	참여	낙찰	낙찰%
Pool 수	15		10		14		13		15		1		5		4		4		4		6		6		97		
연합자산관리	15	11	10	4	14	5	13	5	15	7	1	-	5	2	4	2	4	2	4	1	6	1	-	-	91	40	44.0%
하나F&I	4	-	4	-	4	3	-	-	10	4	1	1	2	1	1	-	-	-	1	-	2	1	-	-	29	10	34.5%
대신F&I	5	1	8	5	10	5	7	2	7	1	-	-	3	1	2	1	3	1	2	1	2	2	2	1	51	21	41.2%
우리금융F&I	6	1	2	-	-	-	7	3	5	1	-	-	-	-	1	-	2	1	2	1	1	-	-	-	26	7	26.9%
키움F&I	5	2	6	1	3	-	6	2	8	2	1	-	2	1	2	1	-	-	1	-	-	-	-	-	34	9	26.5%
유진자산운용	-	-	-	-	4	-	1	1	1	-	-	-	-	-	-	-	-	-	1	-	-	-	-	-	7	1	14.3%
KCLAVIS자산운용	-	-	-	-	-	-	-	-	-	-	-	-	-	-	-	-	-	-	-	-	2	2	6	5	8	7	87.5%
KCLAVIS&BNK 자산운용	-	-	-	-	-	-	-	-	-	-	-	-	-	-	-	-	-	-	1	1	-	-	-	-	1	1	100%
미래F&I	-	-	-	-	1	1	-	-	-	-	-	-	-	-	-	-	-	-	-	-	-	-	-	-	1	1	100%
기타투자자(*)	-	-	-	-	1	-	-	-	1	-	-	-	-	-	-	-	-	-	1	-	-	-	2	-	5	0	0.0%

(\*)기타투자자: 리딩에이스캐피탈, HB캐피탈, 아이파트너스자산운용  
(Source: Announced)

# 투자자별 참여 및 낙찰현황



2024년 총 81개 Pool이 공개입찰방식으로 매각되었으며, 투자자별로는 연합자산관리가 77개 Pool에 참여하여 과반인 39개 Pool을 인수하였고, 키움F&I가 29개 Pool 참여하여 11개, 대신F&I가 42개 Pool 참여하여 14개의 Pool을 인수하였습니다. 반면, 2023년 가장 높은 낙찰율을 기록한 하나F&I의 낙찰율은 17.8%로 크게 하락하였고, 우리금융F&I의 낙찰율은 2023년과 유사하나 참여 Pool 개수는 32개에서 24개로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투자자별 부실채권 참여 및 인수 현황 (2024년)

구분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산업		농협		수협		경남		iM		부산		전북, 광주		합계		
	참여	낙찰	참여	낙찰	참여	낙찰	참여	낙찰	참여	낙찰	참여	낙찰	참여	낙찰	참여	낙찰	참여	낙찰	참여	낙찰	참여	낙찰	참여	낙찰	참여	낙찰	낙찰%
<b>Pool 수</b>	<b>13</b>		<b>8</b>		<b>11</b>		<b>12</b>		<b>12</b>		<b>1</b>		<b>4</b>		<b>5</b>		<b>5</b>		<b>4</b>		<b>4</b>		<b>2</b>		<b>81</b>		
연합자산관리	13	8	8	6	9	3	12	7	12	6	1	-	4	1	4	1	5	2	4	2	4	2	1	1	77	39	50.6%
하나F&I	8	1	7	1	4	-	-	-	10	2	1	1	1	1	3	-	4	-	4	1	3	1	-	-	45	8	17.8%
대신F&I	5	-	3	-	10	5	6	1	3	-	-	-	3	2	3	2	5	2	1	1	3	1	-	-	42	14	33.3%
우리금융F&I	4	2	4	1	-	-	4	1	6	2	-	-	-	-	1	-	2	1	2	-	1	-	-	-	24	7	29.2%
키움F&I	4	1	1	-	6	3	6	3	4	2	-	-	1	-	2	2	2	-	1	-	2	-	-	-	29	11	37.9%
유진자산운용	2	-	-	-	1	-	1	-	1	-	-	-	-	-	1	-	-	-	-	-	-	-	1	-	7	-	0.0%
이지스자산운용	-	-	-	-	-	-	-	-	-	-	-	-	-	-	-	-	-	-	1	-	-	-	-	-	1	-	0.0%
미래에셋자산운용	1	1	-	-	-	-	-	-	-	-	-	-	-	-	-	-	-	-	-	-	-	-	-	-	1	1	100%
파인트리자산운용	1	-	-	-	-	-	-	-	-	-	-	-	-	-	1	-	-	-	-	-	-	-	-	-	2	-	0.0%
기타투자자(*)	-	-	-	-	-	-	-	-	-	-	-	-	-	-	-	-	-	-	-	-	-	-	2	1	2	1	50.0%

(\*)기타투자자: 디에스엔피엘인베스트먼트, 한빛자산관리대부  
 (Source: Announced)

# 투자자별 참여 및 낙찰현황



2023년 총 64개 Pool 이 시장에서 매각되었으며, 연합자산관리는 총 63개 Pool 에 참여하여 36.5%인 23개 Pool 을 인수하였습니다.  
 이어 하나F&I가 39개 Pool 에 참여하여 43.6%인 17개 Pool 을 인수하여 참여 Pool 대비 낙찰 건수로는 가장 높은 성공률을 기록하였습니다.

투자자별 부실채권 참여 및 인수 현황 (2023년)

구분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산업		농협		수협		경남		iM		부산		전북, 광주		합계		
	참여	낙찰	참여	낙찰	참여	낙찰	참여	낙찰	참여	낙찰	참여	낙찰	참여	낙찰	참여	낙찰	참여	낙찰	참여	낙찰	참여	낙찰	참여	낙찰	참여	낙찰	낙찰%
Pool 수	6		7		8		9		10		1		6		3		4		4		4		2		64		
연합자산관리	6	3	7	6	8	1	9	5	10	2	1	-	6	1	3	1	4	-	4	3	4	1	1	-	63	23	36.5%
하나F&I	5	1	5	1	6	4	-	-	9	4	1	-	3	2	2	1	2	1	2	1	3	1	1	1	39	17	43.6%
대신F&I	3	1	5	-	4	2	6	1	5	1	1	-	2	1	-	-	2	-	3	-	1	-	-	-	32	6	18.8%
우리금융F&I	4	1	3	-	-	-	7	1	8	1	-	-	2	2	1	1	1	1	2	-	3	2	1	-	32	9	28.1%
키움F&I	1	-	2	-	2	-	3	-	4	2	1	1	1	-	2	-	3	2	3	-	-	-	1	1	23	6	26.1%
유진자산운용	-	-	-	-	1	1	1	1	-	-	-	-	-	-	1	-	-	-	1	-	-	-	-	-	4	2	50.0%
이지스자산운용	-	-	-	-	-	-	1	1	-	-	-	-	-	-	-	-	-	-	-	-	1	-	-	-	2	1	50.0%
미래에셋자산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0.0%
파인트리자산운용	-	-	1	-	-	-	-	-	-	-	-	-	-	-	-	-	-	-	-	-	-	-	-	-	1	-	0.0%
기타투자자(*)	-	-	-	-	1	-	-	-	-	-	-	-	2	-	-	-	-	-	-	-	-	-	-	-	3	-	0.0%

(\*)기타투자자: 한국증권금융, 주니퍼파트너스  
 (Source: Announced)

# 투자자별 참여 및 낙찰현황



2022년 총 41개 Pool 이 시장에서 매각되었으며, 연합자산관리는 총 41개 Pool 에 참여하여 46.3%인 19개 Pool을 인수하였습니다. 이어 하나F&I가 35개 Pool 에 참여하여 7개 Pool을 인수하였으며, 우리금융F&I는 23개 pool 에 참여하여 6개 Pool 을 인수하였습니다.

투자자별 부실채권 참여 및 인수 현황 (2022년)

구분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산업		농협		수협		경남		iM		부산		합계		
	참여	낙찰	참여	낙찰	참여	낙찰	참여	낙찰	참여	낙찰	참여	낙찰	참여	낙찰	참여	낙찰	참여	낙찰	참여	낙찰	참여	낙찰	참여	낙찰	낙찰%
Pool수	2		5		4		3		11		1		4		2		3		2		4		41		
연합자산관리	2	-	5	3	4	3	3	1	11	6	1	1	4	-	2	-	3	1	2	1	4	3	41	19	46.3%
하나F&I	1	-	5	1	4	-	-	-	11	1	1	-	3	1	2	2	3	1	2	-	3	1	35	7	20.0%
대신F&I	2	-	5	1	3	-	3	2	8	1	-	-	2	-	1	-	3	-	2	1	2	-	31	5	16.1%
우리금융F&I	2	1	3	-	-	-	3	-	8	3	-	-	3	2	1	-	1	-	1	-	1	-	23	6	26.1%
키움F&I	1	1	2	-	1	1	-	-	6	-	-	-	1	-	2	-	3	1	2	-	3	-	21	3	14.3%
유진자산운용	-	-	-	-	1	-	-	-	-	-	-	-	-	-	-	-	-	-	-	-	-	-	1	-	0.0%
이지스자산운용	-	-	-	-	2	-	2	-	1	-	-	-	2	1	1	-	-	-	-	-	-	-	8	1	12.5%
미래에셋자산운용	-	-	-	-	1	-	1	-	1	-	-	-	-	-	-	-	-	-	1	-	-	-	4	-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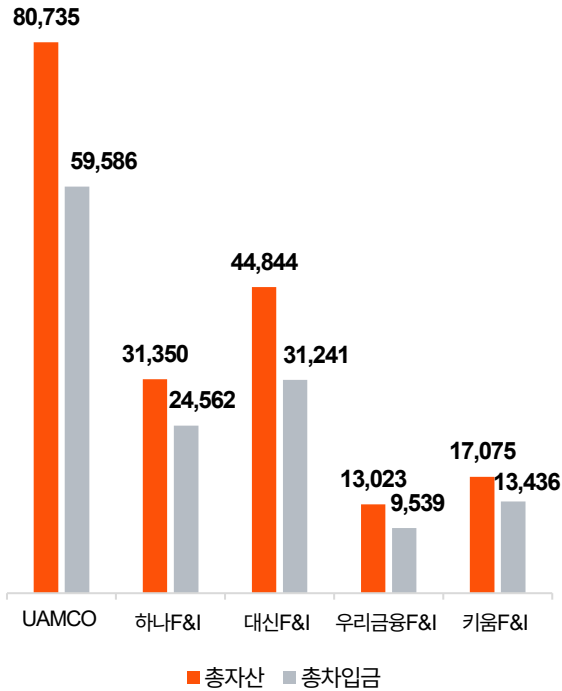
(Source: Announced)

# 투자자별 수익성 및 안정성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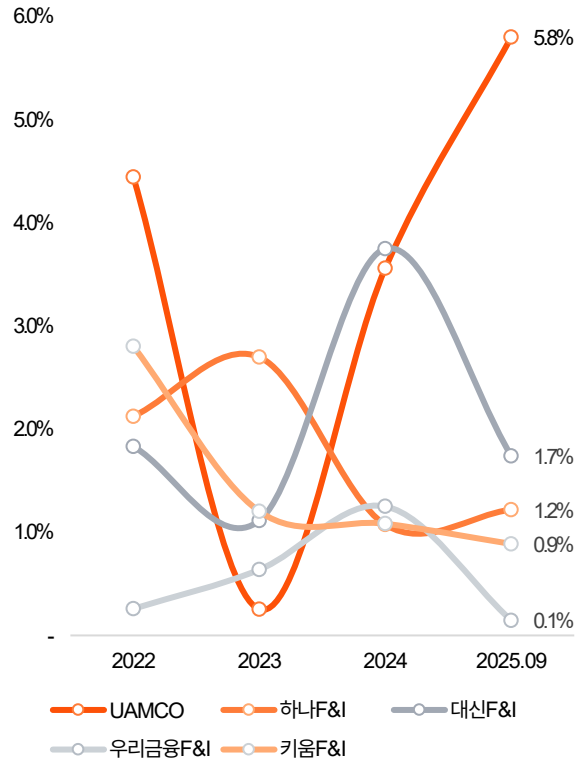


UAMCO의 총자산 및 총차입금은 각각 약 8조 및 6조로 투자자 중 가장 많고, 대신 F&I와 하나 F&I 등이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기준 총자산수익률은 UAMCO가 5.8%로 수익성이 가장 높으며, 레버리지 비율은 하나F&I가 5.5로 가장 높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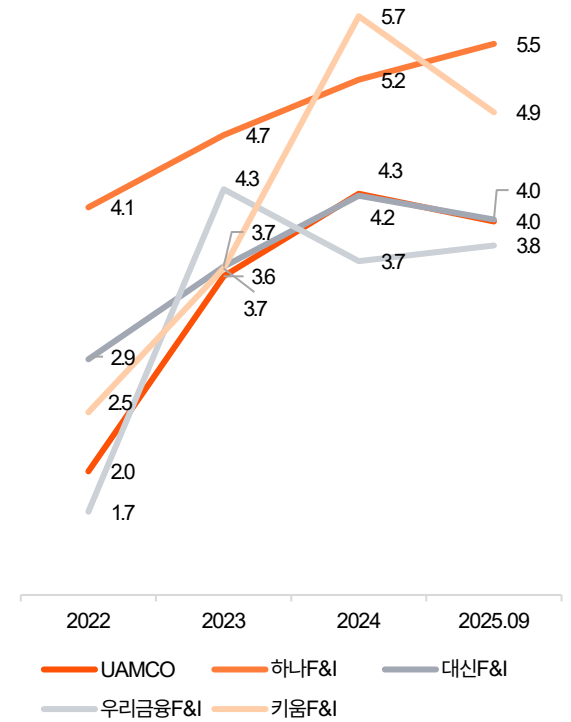
총자산 및 총차입금(\*)



총자산수익률 (ROA)



레버리지 비율 (총자산 ÷ 자기자본)



(\*) 2025년 9월말 기준  
(Source: 각 사 감사(검토)보고서)

# ① 연합자산관리(UAMCO) - 주요 재무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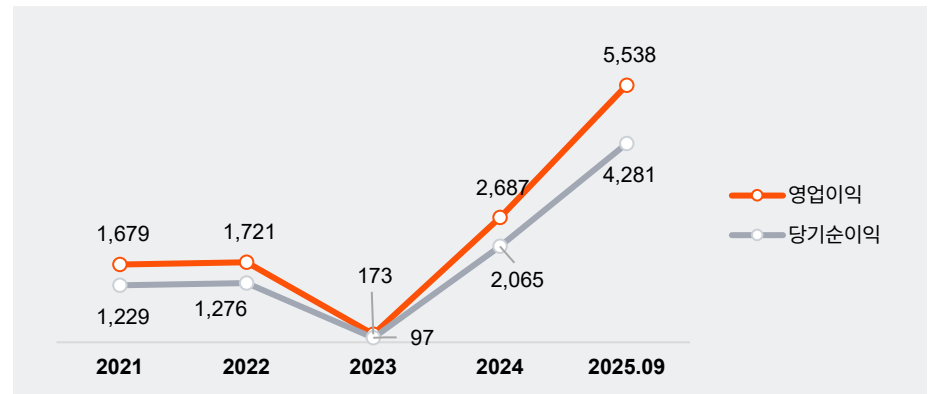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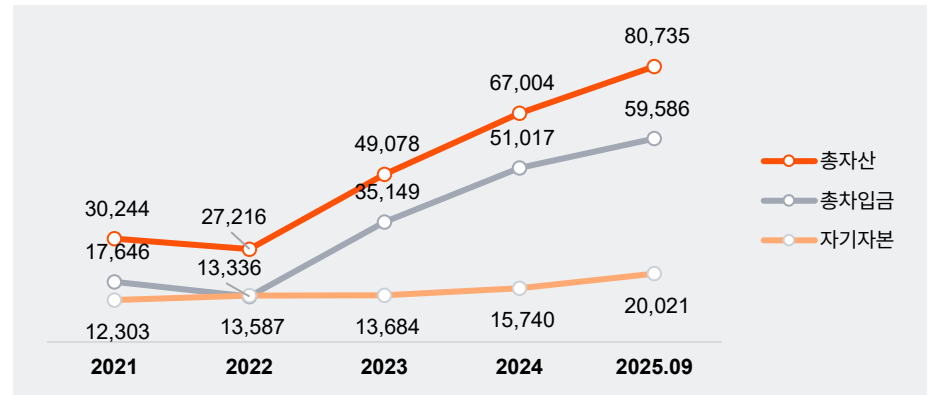
연합자산관리는 2025년 9월말 기준 총자산 약 8조 735억원, 자기자본 2조 21억원으로 레버리지 4.0배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투자자산 규모는 2024년 대비 약 1조 2,275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재무지표 및 투자회수 현황 (2025년 9월말, 연결 기준)

(단위: 억원)	2021	2022	2023	2024	2025.09
총자산	30,244	27,216	49,078	67,004	80,735
투자자산	28,032	24,921	46,471	64,465	76,740
총차입금	17,646	13,336	35,149	51,017	59,586
자기자본	12,303	13,587	13,684	15,740	20,021
영업이익	1,679	1,721	173	2,687	5,538
당기순이익	1,229	1,276	97	2,065	4,281
<b>ROA(%)</b>	<b>3.5%</b>	<b>4.4%</b>	<b>0.3%</b>	<b>3.6%</b>	<b>5.8%</b>
ROE(%)	10.5%	9.9%	0.7%	14.0%	23.9%
<b>레버리지 (총자산/자기자본)</b>	<b>2.5배</b>	<b>2.0배</b>	<b>3.6배</b>	<b>4.3배</b>	<b>4.0배</b>

(Source: 감사(검토)보고서)

주요 재무지표 추이



## ② 하나 F&I - 주요 재무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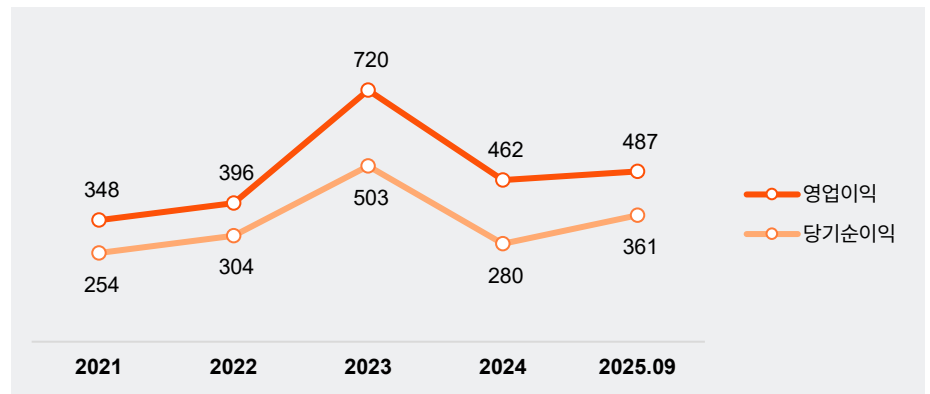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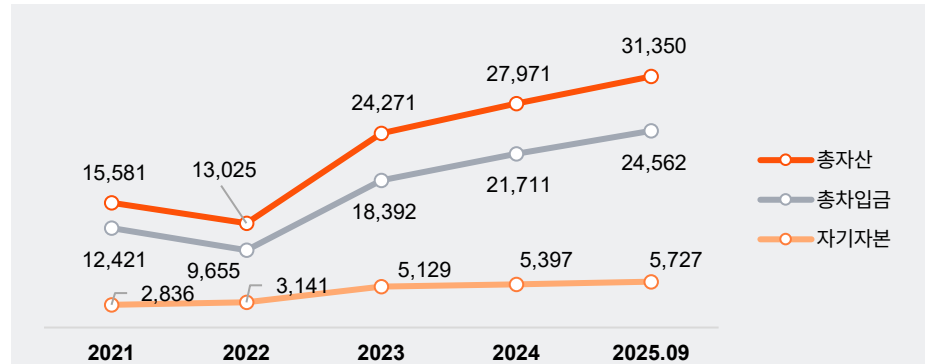
하나 F&I는 2025년 9월말 기준 총자산 약 3조 1,350억원, 자기자본 5,727억원으로 레버리지 5.5배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투자자산 규모는 2024년 대비 약 2,891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재무지표 및 투자회수 현황 (2025년 9월말, 연결 기준)

(단위: 억원)	2021	2022	2023	2024	2025.09
총자산	15,581	13,025	24,271	27,971	31,350
투자자산	14,422	11,661	23,108	26,961	29,852
총차입금	12,421	9,655	18,392	21,711	24,562
자기자본	2,836	3,141	5,129	5,397	5,727
영업이익	348	396	720	462	487
당기순이익	254	304	503	280	361
<b>ROA(%)</b>	<b>1.7%</b>	<b>2.1%</b>	<b>2.7%</b>	<b>1.1%</b>	<b>1.2%</b>
ROE(%)	10.7%	10.2%	12.2%	5.3%	6.5%
<b>레버리지 (총자산/자기자본)</b>	<b>5.5배</b>	<b>4.1배</b>	<b>4.7배</b>	<b>5.2배</b>	<b>5.5배</b>

(Source: 감사(검토)보고서)

주요 재무지표 추이



# ③ 대신 F&I - 주요 재무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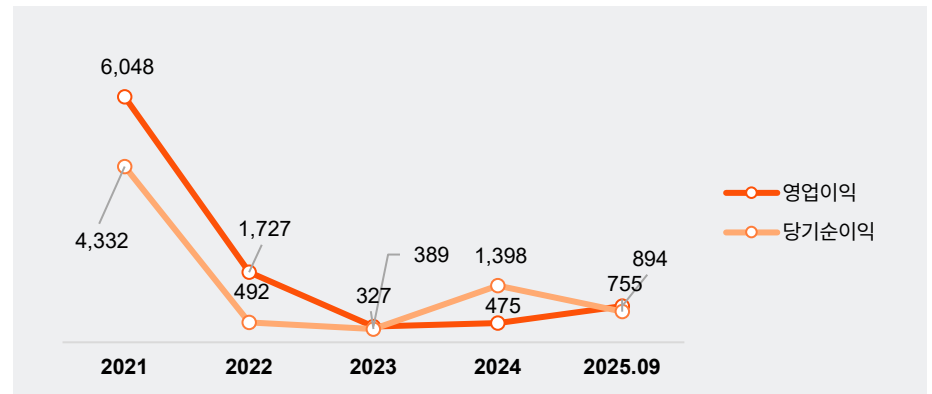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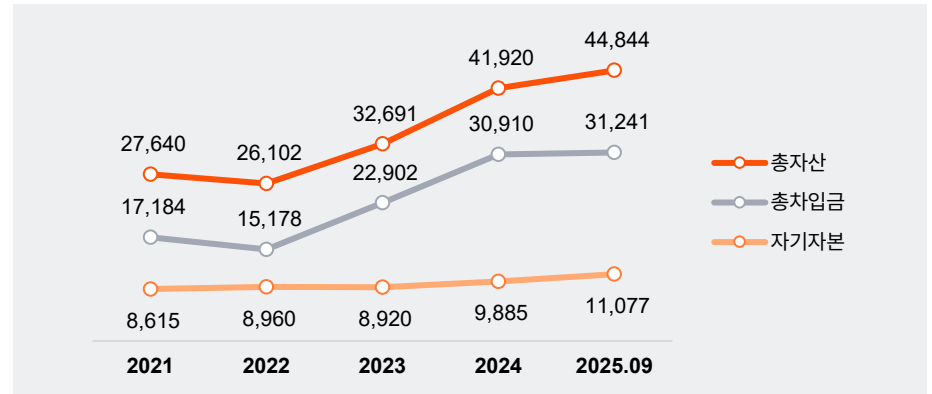
대신 F&I는 2025년 9월말 기준 총자산 약 4조 4,844억원, 자기자본 1조 1,077억원으로 레버리지 4.0배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투자자산 규모는 2024년 대비 약 2,534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재무지표 및 투자회수 현황 (2025년 9월말, 연결 기준)

(단위: 억원)	2021	2022	2023	2024	2025.09
총자산	27,640	26,102	32,691	41,920	44,844
투자자산	22,231	18,508	24,405	34,021	36,556
총차입금	17,184	15,178	22,902	30,910	31,241
자기자본	8,615	8,960	8,920	9,885	11,077
영업이익	6,048	1,727	389	475	894
당기순이익	4,332	492	327	1,398	755
<b>ROA(%)</b>	<b>13.9%</b>	<b>1.8%</b>	<b>1.1%</b>	<b>3.7%</b>	<b>1.7%</b>
ROE(%)	66.9%	5.6%	3.7%	14.9%	7.2%
<b>레버리지 (총자산/자기자본)</b>	<b>3.2배</b>	<b>2.9배</b>	<b>3.7배</b>	<b>4.2배</b>	<b>4.0배</b>

(Source: 감사(검토)보고서)

주요 재무지표 추이



# ④ 우리금융 F&I - 주요 재무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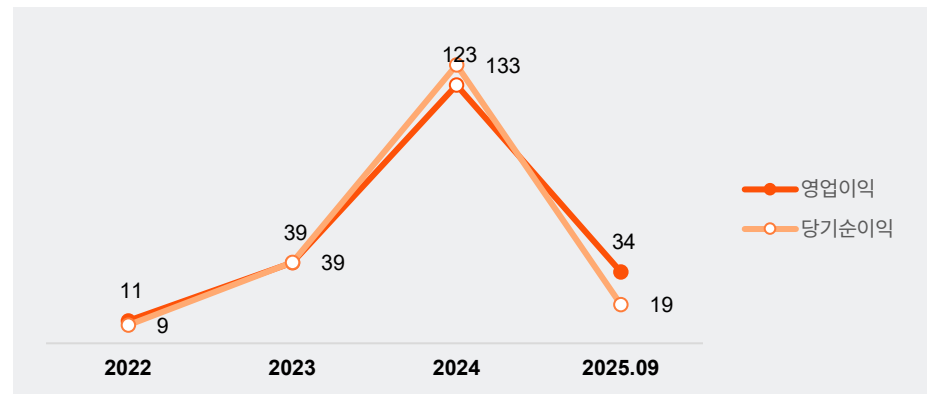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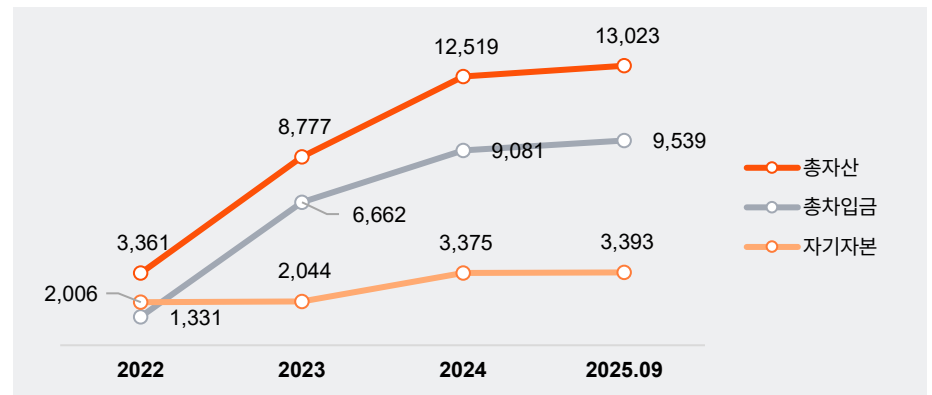
우리금융 F&I는 2025년 9월말 기준 총자산 약 1조 3,023억원, 자기자본 3,393억원으로 레버리지 3.8배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투자자산 2024년 대비 약 166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재무지표 및 투자회수 현황 (2025년 9월말, 연결 기준)

(단위: 억원)	2022	2023	2024	2025.09
총자산	3,361	8,777	12,519	13,023
투자자산	3,196	8,447	11,731	11,897
총차입금	1,331	6,662	9,081	9,539
자기자본	2,006	2,044	3,375	3,393
영업이익	11	39	123	34
당기순이익	9	39	133	19
<b>ROA(%)</b>	<b>0.3%</b>	<b>0.6%</b>	<b>1.2%</b>	<b>0.1%</b>
ROE(%)	0.4%	1.9%	4.9%	0.5%
<b>레버리지 (총자산/자기자본)</b>	<b>1.7배</b>	<b>4.3배</b>	<b>3.7배</b>	<b>3.8배</b>

(Source: 감사(검토)보고서)

주요 재무지표 추이



# ⑤ 키움 F&I - 주요 재무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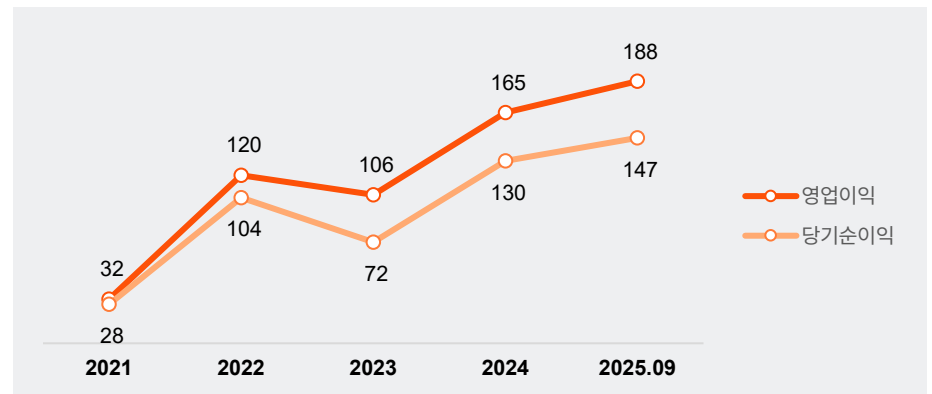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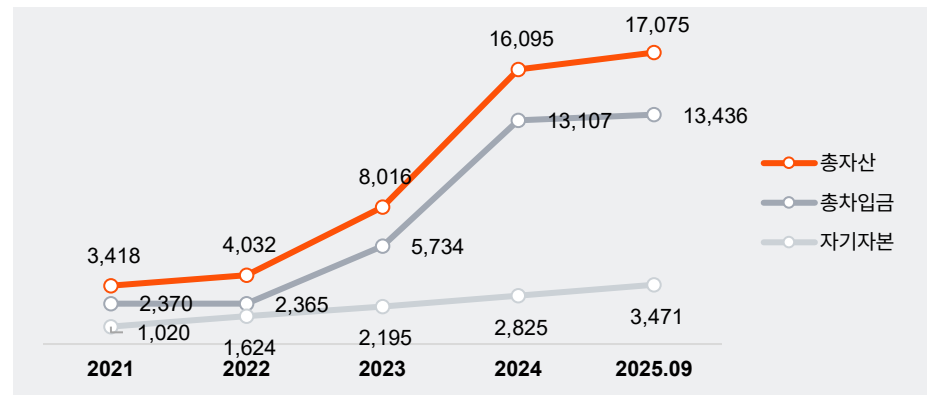


키움 F&I는 2025년 9월말 기준 총자산 약 1조 7,075억원, 자기자본 3,471억원으로 레버리지 4.9배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투자자산 규모는 2024년 대비 약 1,024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재무지표 및 투자회수 현황 (2025년 9월말, 연결 기준)

(단위: 억원)	2021	2022	2023	2024	2025.09
총자산	3,418	4,032	8,016	16,095	17,075
투자자산	3,282	3,698	7,350	15,024	16,048
총차입금	2,370	2,365	5,734	13,107	13,436
자기자본	1,020	1,624	2,195	2,825	3,471
영업이익	32	120	106	165	188
당기순이익	28	104	72	130	147
<b>ROA(%)</b>	<b>1.2%</b>	<b>2.8%</b>	<b>1.2%</b>	<b>1.1%</b>	<b>0.9%</b>
ROE(%)	3.7%	7.9%	3.8%	5.2%	4.7%
<b>레버리지 (총자산/자기자본)</b>	<b>3.4배</b>	<b>2.5배</b>	<b>3.7배</b>	<b>5.7배</b>	<b>4.9배</b>

주요 재무지표 추이



(\*) 2024년의 경우, 6월말 기준임.  
(Source: 감사(검토)보고서)

# 주요 투자자 동향 - 자산운용사



투자자명	기본개요		최근 내부 동향 및 전망
	주주	재무정보	
유진자산운용	유진투자증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순자산 329억원</li> <li>영업수익 204억원</li> <li>영업이익 24억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4년 하반기 우정사업본부 NPL 펀드 위탁운용사로 선정, 약 2,400억원 규모의 NPL 펀드 설립함.</li> <li>2024년 4분기 하나은행 및 기업은행 각 1개 Pool 참여하였으나 인수하지 못함</li> <li>2025년 2분기 새마을금고 부실채권(개별대출) 약 76억 Pool 및 2025년 3분기 하나은행 약 948억 Pool 인수</li> </ul>
이지스자산운용	최대주주 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순자산 5,132억원</li> <li>영업수익 4,183억원</li> <li>영업이익 1,132억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4년 11월 약 1,500억원 규모의 NPL 펀드를 조성 및 2024년 4분기 대구은행 1개 Pool 참여하였으나 인수하지 못함</li> <li>2025년 3분기 새마을금고 부실채권(개별대출) 약 250억 Pool 인수</li> </ul>
미래에셋자산운용	최대주주 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순자산 4.1조원</li> <li>영업수익 1.3조원</li> <li>영업이익 4,104억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3년 '새마을금고 금융안정 지원 펀드' 운용사 선정되어 3,000억원 규모로 각 새마을금고 부실채권 매입 진행하였으며 2024년 12월 말 소진 완료</li> <li>2024년 9월 신용협동조합 NPL채권 매입펀드 운용사 선정되어 총 5,000억원 규모로 각 신용협동조합의 부실채권 매입 진행</li> </ul>
KCLAVIS자산운용	최대주주 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순자산 852억원</li> <li>영업손실 3억원</li> <li>영업이익 41억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3년 '새마을금고 금융안정 지원 펀드' 운용사 선정되어 3,000억원 규모로 각 새마을금고 부실채권 매입 진행하였으며 2024년 12월 말 소진 완료</li> <li>2024년 캠코가 지방은행 등 자산 건전성 제고를 위해 조성하는 부실채권 펀드 운용사로 선정되어 약 2,000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 완료. 2025년 일부 지방은행 부실채권 Pool 낙찰 → 부산은행 약 420억원, 아이엠뱅크 약 480억원(BNK 컨소시엄), 전북은행 약 659억원, 광주은행 282억원 Pool 등 인수</li> </ul>

(\*) 재무정보는 2024년말 기준

# 부실채권(NPL) 매각가율 및 법원 경매 추이

# 5

5.1 제1금융권 매각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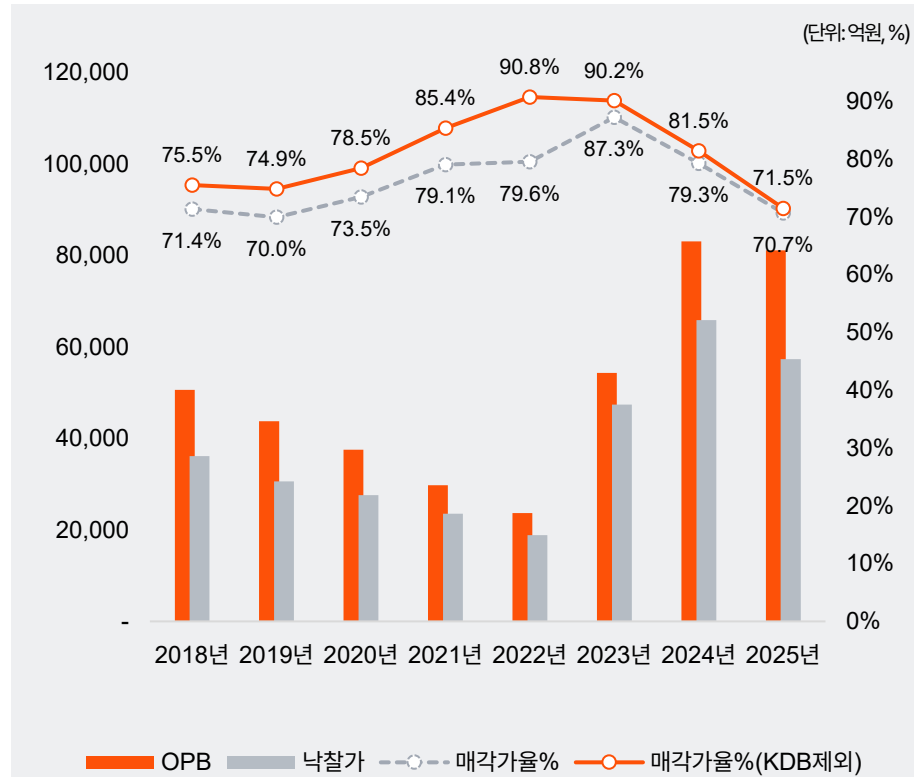
5.2 법원경매 추이

# 부실채권 매각가율 추이 - 연·분기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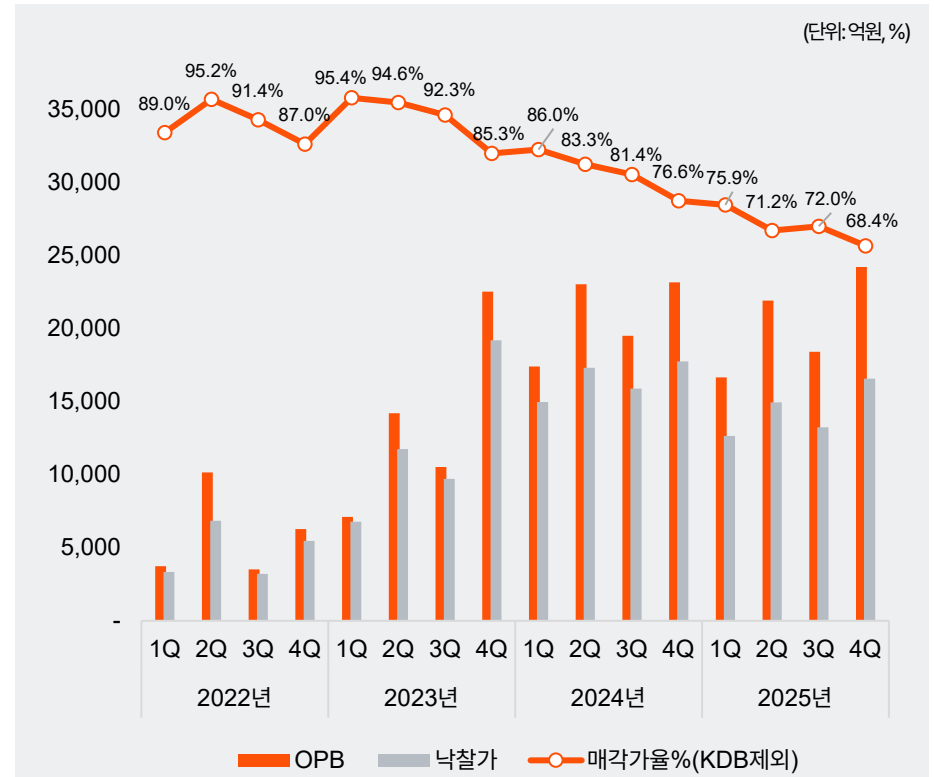
연체율 증가에 따른 은행권의 적극적인 자산건전성 관리 기조에 따라 부실채권 매각 규모는 큰 폭으로 증가하여 왔으나, 이를 매입하려는 신규 투자자의 유입은 더딘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최근 부실채권 매각가율은 유의적으로 하락하였습니다.

매각가율 추이 (연도별)



(Source: PwC Analysis)

매각가율 추이 (분기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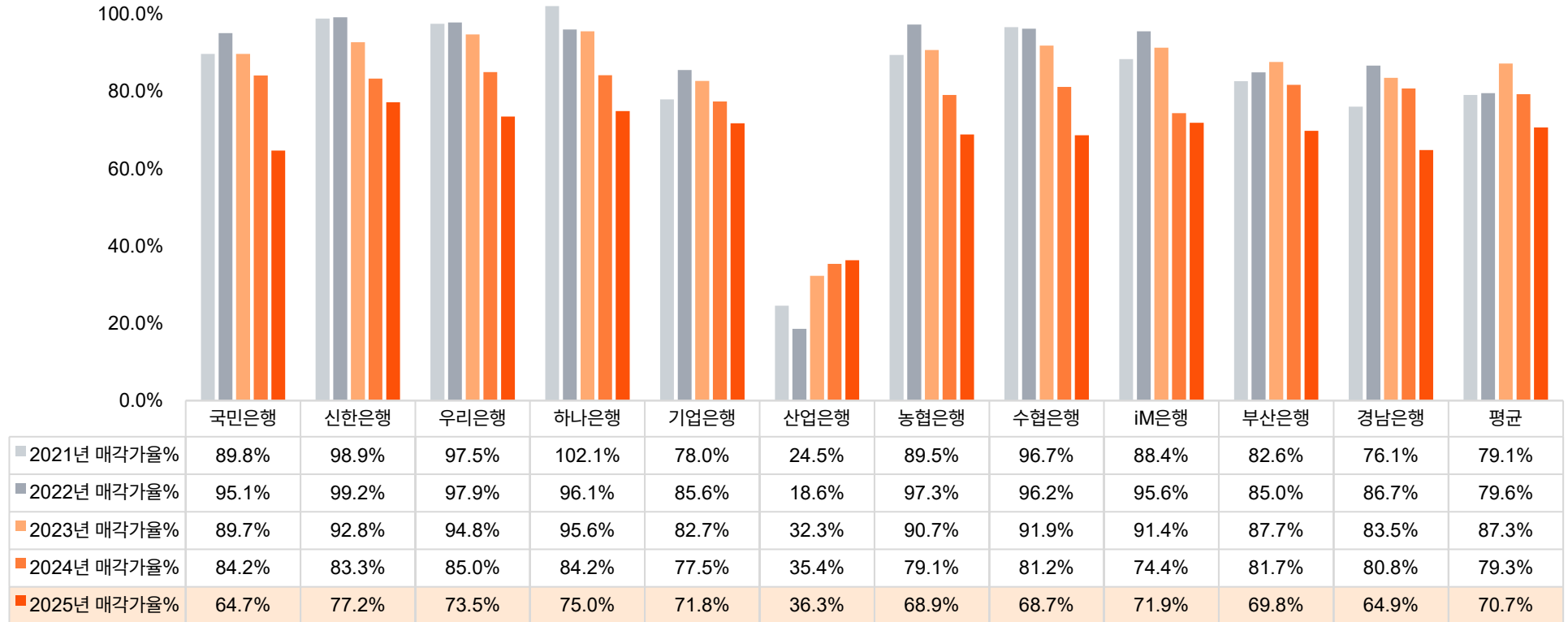
(Source: PwC Analysis)

# 부실채권 매각가율 추이 - 금융기관 기준



2023년부터 시작된 급격한 매각규모 증가에 따라 거의 전 은행권의 부실채권 매각가율은 하락하고 있으며, 특히 과거 높은 매각가율을 기록하던 시중은행(국민, 신한, 우리, 하나)의 낙폭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매각대상 채권 특성 영향을 크게 받는 산업은행의 매각가율만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매각가율 추이 (금융기관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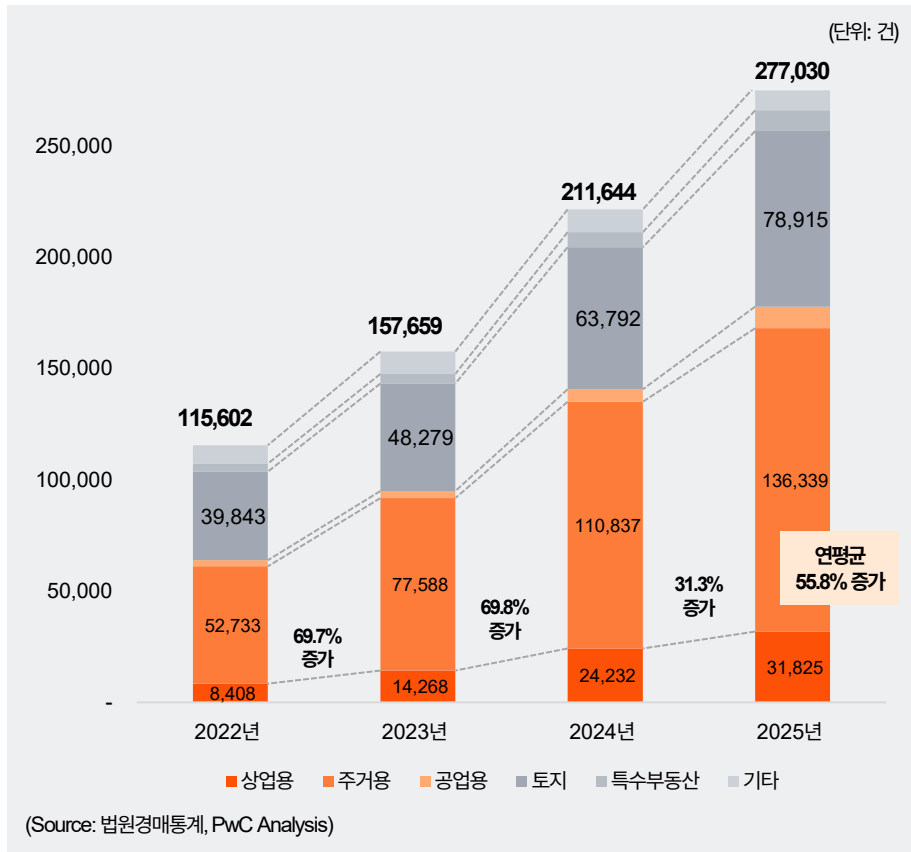
(Source: PwC Analysis)

# 법원 경매 건수 및 낙찰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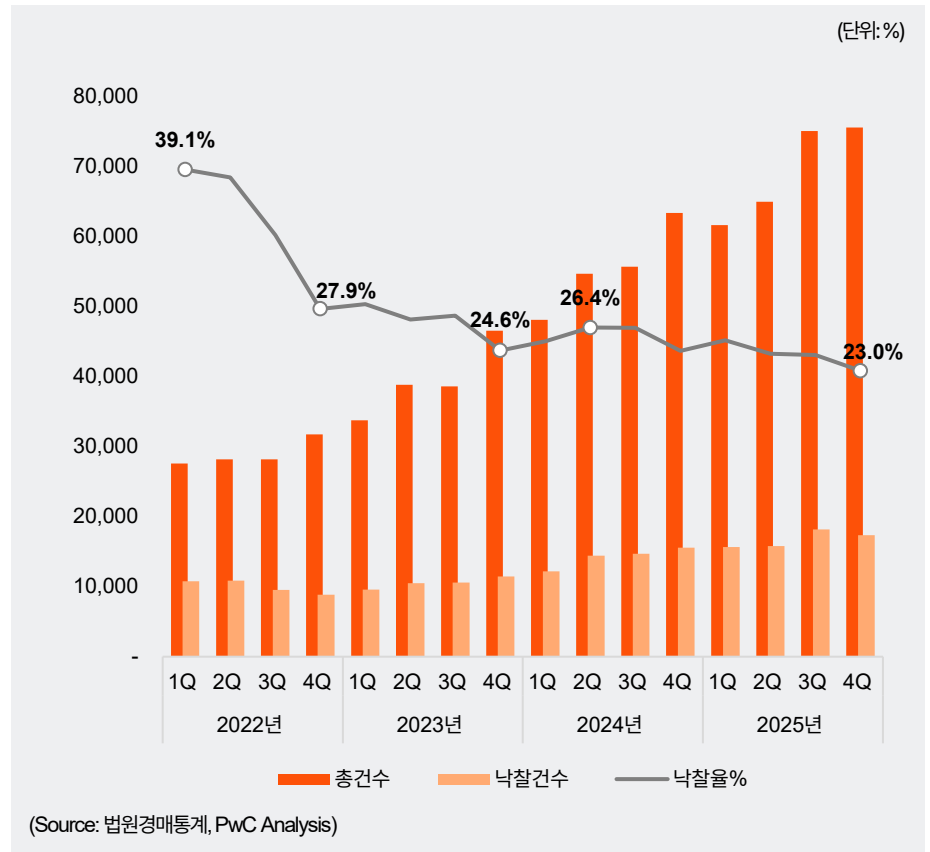


법원 경매 진행 건수는 2022년 총 115,602건에서 매년 크게 증가하여 2025년에는 총 277,030건으로 연평균 증가율은 33.8% 입니다. 담보유형별로는 상업용 부동산의 연평균증가율이 55.8%로 가장 높았습니다. 같은 기간 경매낙찰건수는 40,003건에서 66,922건으로, 경매 진행 건수 대비 낙찰 건수 비율은 2022년 1분기 39.1%에서 2025년 4분기 23.0%까지 하락하였으며, 특히 상업용 부동산은 동기간 32.8%에서 14.1%까지 하락하였습니다.

법원경매 진행건수 추이



법원경매 낙찰율 추이 (분기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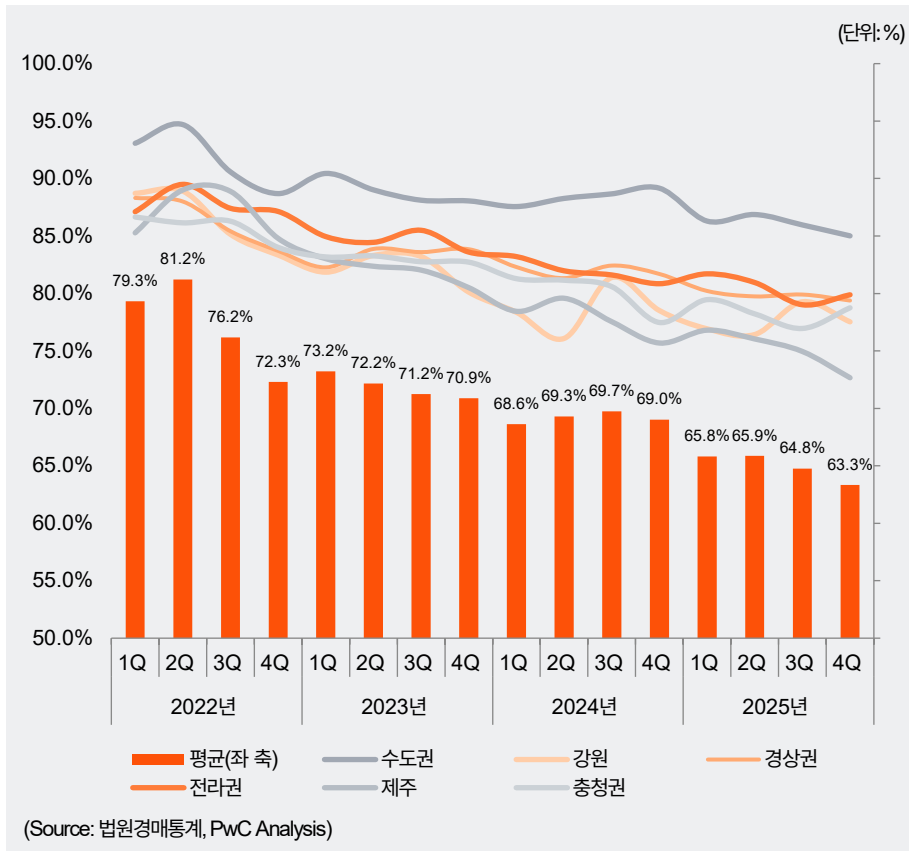


# 법원 경매 낙찰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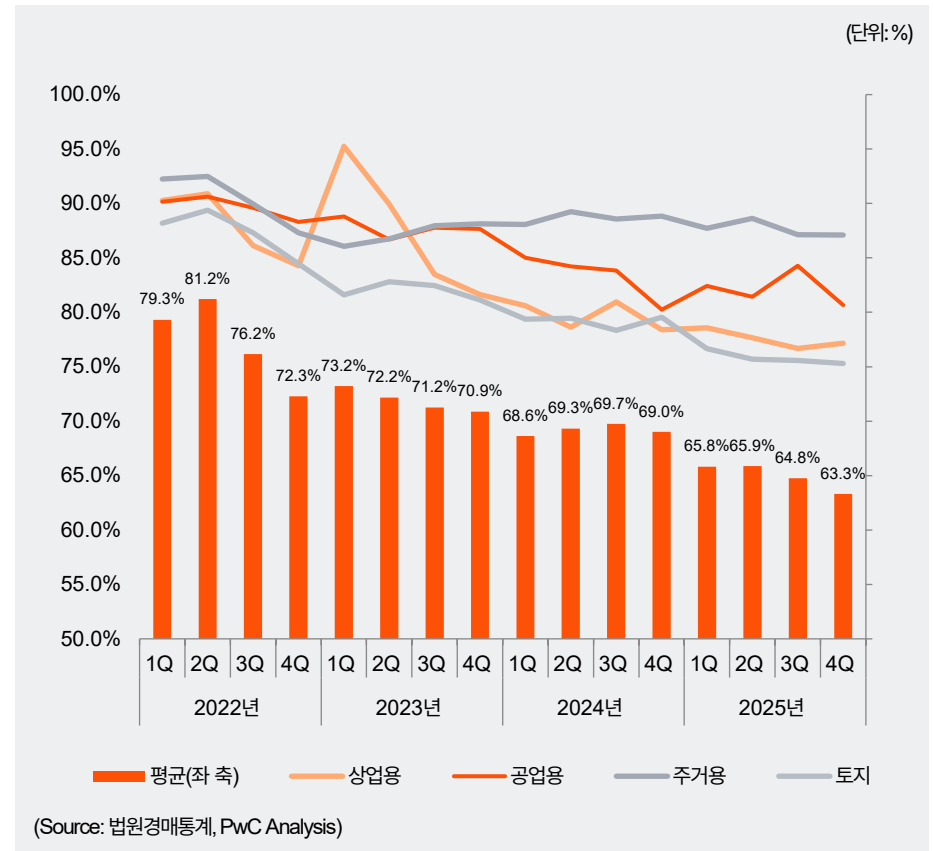


2022년 상반기까지 80% 전후를 기록하던 법원 경매 낙찰가율은 2022년 3분기를 시작으로 지속 하락하여 2025년 4분기 약 63%수준까지 하락하였습니다.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의 하락추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담보유형별로는 상업형 부동산의 낙찰가율 하락이 유의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법원경매 낙찰가율 추이 (지역별)



법원경매 낙찰가율 추이 (담보유형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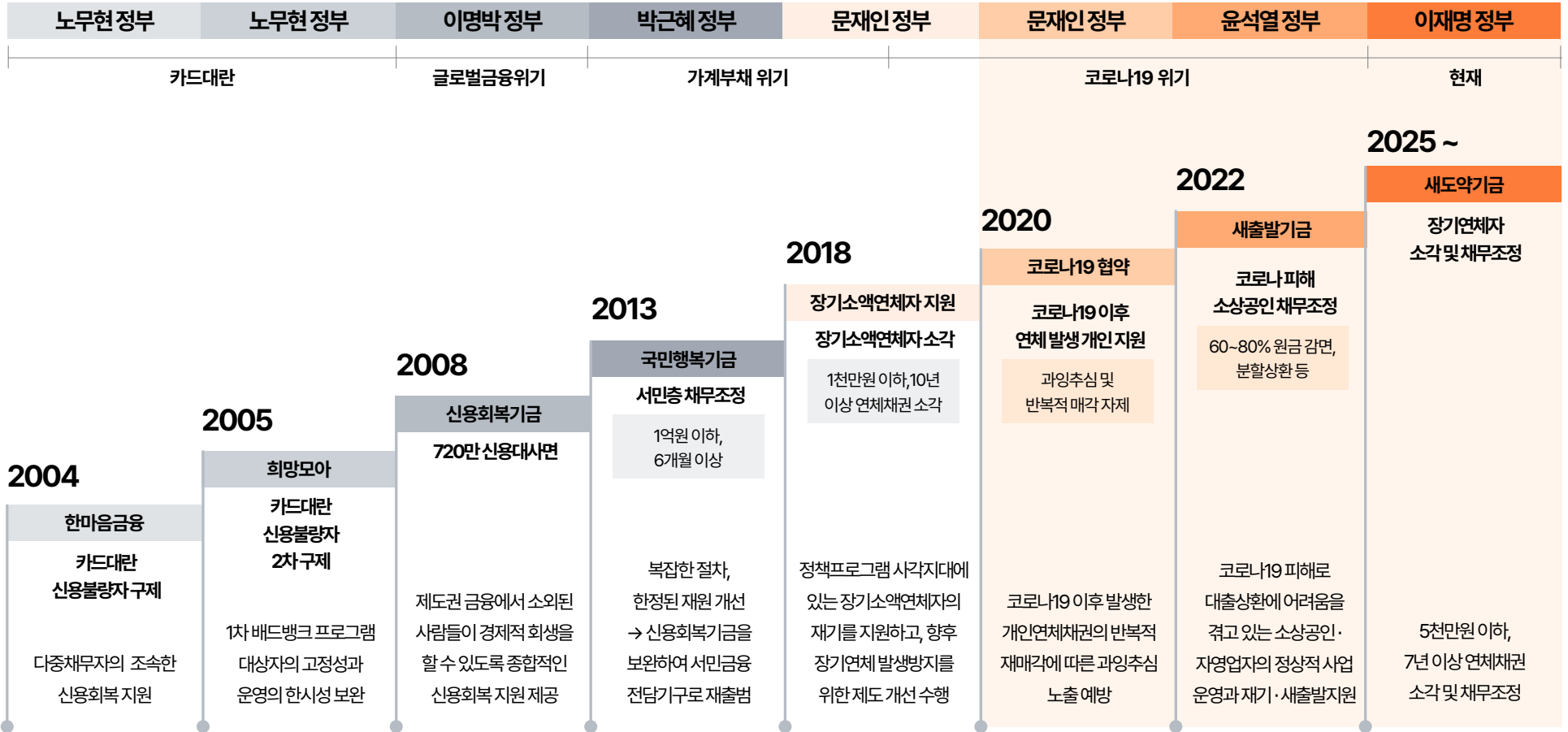
# 부실채권(NPL) 정책 동향



# 정책 목적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 연혁



서민금융지원을 위한 신용회복지원기구는 2003년 카드대란 이후 한마음·희망모아를 시작으로 최근 새도약기금까지 다양한 형태로 운용되어 왔습니다.



(Source: PwC Analysis)

# 주요 신용회복지원 협약 현황



현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따라 협약채권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외부매각이 가능하며, 관련 주요 협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① 코로나19 피해 개인연체채무자 신용지원 협약	②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지원 협약	③ 새도약기금 신용회복지원 협약
시행일		2020년 6월 29일	2022년 10월 4일	2025년 10월 1일 출범
지원대상		2020년 2월 이후 연체가 발생한 개인 무담보채권 (개인사업자 포함)	2020년 4월 이후 사업한 사실이 있는 개인 자영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의 담보·무담보채권 (연체 3개월 내 부실우려까지 포함)	2025년 6월 19일 기준, "7년 이상 연체 + 5천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 (개인사업자 포함)
외부매각 자제		○ (자산유동화방식 매각 허용(23.6~))	○ (자산유동화방식 매각 허용(24.1~))	○
매입 방식		개별 매입 (채무자 신청)	개별 매입 (채무자 신청)	일괄 매입
매입 대상	담보	N/A	○ (부동산 및 동산 포함)	N/A
	무담보	○	○	○

(Source: PwC Analysis)

# 협약 및 법령 개정에 따른 시장매각 가능 범위 확대



2023년 6월, 2024년 1월 주요 신용회복지원 협약의 개정 및 금융위 보도자료에 따라 협약채권의 시장매각이 일부 허용되었으며, 2024년 초 자산유동화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산보유자 요건이 확대되며 상호금융권의 자산유동화방식 시장매각이 개시되었습니다.

## 코로나19 및 새출발기금 협약채권 시장매각 일부 허용

일정	내용	매각가능기관
2023년 6월	코로나19 협약채권 → 자산유동화 방식 매각 가능	KAMCO (+) NPL전업사(F&I)
2024년 1월	새출발기금 협약채권 → 자산유동화 방식 매각 가능	새출발기금 (+) KAMCO, NPL전업사
2024년 하반기	코로나19 & 새출발기금 협약채권 → 대부업 외 금융회사 매각 가능	대부업권 외 금융社 확대 (단, 자산유동화방식)

\* 코로나19피해개인연체채무자신용지원 협약 개정 및 금융위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24.1) 발표 등을 통하여 대상채권의 시장매각이 가능해짐.

## 자산유동화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상호금융권 시장매각 개시

일정	내용
2024년 1월	자산유동화법 시행령 개정 <sup>(*)</sup>
2024년 2분기	MG중앙회 시장매각 개시
2024년 3분기	수협중앙회 시장매각 개시
2024년 3.5분기	신협, 산림조합중앙회 시장매각 개시
2024년 4분기	농협중앙회 시장매각 개시
2025년 현재	상호금융업권 시장매각 진행 중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자산보유자 요건이 완화되며 상호금융권 전 권역 확대 가능해짐 (기존 일부 중앙회 및 조합만 규정).



## 주요 신용지원 협약 개정 및 자산유동화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시장매각 가능 범위 확대

(Source: PwC Analysis)

# 향후전망 및 대응



# 시장 동향 및 향후 전망 | ① 공급 관점



구분	최근 동향	향후 전망
<b>공급 측면</b>	<b>전 업권 연체율 증가 추세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담보 외 무담보채권 적극 정리 가능성</b>	
제1금융권 및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연체율 증가에 따른 부실채권 매각 규모 확대 (25년 약 8.1조원 매각)</li> <li>② 한미 금리역전 상황 지속, 환율 상승에 따른 제한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으로 경기 회복 난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경기둔화로 인한 연체율 증가 추세 지속, 한계차주 부실화 가능성 지속</li> <li>② 매각가율보다 연체율 관리를 우선순위로 하여 담보채권 뿐만 아니라 무담보채권도 적극적으로 정리할 가능성 증가</li> <li>③ 25년 상반기 3.9조원, 25년 하반기 4.2조원 매각되었으며, 26년 상반기 역시 약 4조원 전후의 부실채권 매각될 것으로 전망</li> </ul>
제2금융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시장매각 진행 개시</li> <li>② NPL 자회사 신규 설립 및 자본 확충</li> <li>③ 중앙회의 NPL 펀드 LP 참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감독 당국의 건전성 관리 지도 강화로 매각 규모 증가 예상</li> <li>② NPL 자회사의 브릿지론 등 공동대출 인수로 채권 회수 기간 장기화, 공동대출 위주로 분기별 500억~1,000억원 규모의 시장매각 지속 추진 예상</li> </ul>

# 시장 동향 및 향후 전망 | ② 수요 관점



구분	최근 동향	향후 전망																								
수요 측면	주요 NPL 전업사 레버리지 비율 상승 및 RWA 규제 영향 지속, NPL 펀드 및 자회사 통한 관리 노력 진행 중																									
주요 NPL 전업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24년 대규모 인수 후 하반기 사채 발행 및 증자 등 25년 인수 대비 추가 자금조달로 레버리지 비율 급증</li> <li>② 하반기 RWA 규제 등으로 금융지주계열 전업사 소극적 투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레버리지비율 상승, 환율 상승에 따른 RWA 규제 상황 악화로 금융지주 자회사의 경우 제한적이고 선별적 인수 기조 지속 예상</li> <li>② 기존 매입자산 회수 지연(지식산업센터, 상업형 부동산 위주)에 따른 투자자 입찰가격 하락은 지속 될 것으로 예상</li> </ul>																								
자산운용사 (NPL 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미래에셋자산운용, 케이클라비스자산운용, 유진자산운용 등 GP의 지방은행,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 중앙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펀드 설정</li> <li>② 저축은행/여전업권/MG-UAMCO 등 PF 정상화 펀드 설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기존 업권별 펀드 증액 또는 기존 미설정 업권의 신규 NPL 펀드 설정 추진 예상</li> </ul>																								
신규 투자자 및 NPL 자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입찰 시장에 참여하는 뚜렷한 신규 투자자 진입 없음</li> <li>②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업권 NPL 자회사 설립 및 양수도 진행</li> </ul> <table border="1" data-bbox="389 943 1120 1268"> <thead> <tr> <th>구분</th> <th>회사명</th> <th>설립시점</th> </tr> </thead> <tbody> <tr> <td>은행</td> <td>UAMCO</td> <td>2009년</td> </tr> <tr> <td>농협</td> <td>농협자산관리회사</td> <td>2002년</td> </tr> <tr> <td>신협</td> <td>KCU NPL 대부</td> <td>2024년</td> </tr> <tr> <td>수협</td> <td>수협 NPL 대부</td> <td>2024년</td> </tr> <tr> <td>새마을금고</td> <td>MG자산관리회사 (MCI대부)</td> <td>2025년(2013년)</td> </tr> <tr> <td>산림조합</td> <td>SJ NPL 대부</td> <td>2025년</td> </tr> <tr> <td>저축은행</td> <td>SB NPL 대부</td> <td>2025년</td> </tr> </tbody> </table>	구분	회사명	설립시점	은행	UAMCO	2009년	농협	농협자산관리회사	2002년	신협	KCU NPL 대부	2024년	수협	수협 NPL 대부	2024년	새마을금고	MG자산관리회사 (MCI대부)	2025년(2013년)	산림조합	SJ NPL 대부	2025년	저축은행	SB NPL 대부	202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기존 NPL 투자 이력이 있는 자산운용사나 외국계 펀드를 위주로 하여 시장 진입 기회를 지속적으로 모색 중이나, 일반담보부 NPL Pool 매수는 전업사, 상호금융기관 산하 NPL 대부회사 및 업권별 NPL 펀드 등 기존 투자자 대비 경쟁우위 확보 난망</li> <li>② 그 외 신규 투자자는 PF, 브릿지론 등 건당 자산규모가 비교적 큰 특수자산에 한정된 진입 예상</li> <li>③ 대부업법에 따른 자회사의 경우 총자산이 자본금 10배 이내로 제한됨에 따라 대부회사의 자산관리회사 전환 설립 추진 예상</li> </ul>
구분	회사명	설립시점																								
은행	UAMCO	2009년																								
농협	농협자산관리회사	2002년																								
신협	KCU NPL 대부	2024년																								
수협	수협 NPL 대부	2024년																								
새마을금고	MG자산관리회사 (MCI대부)	2025년(2013년)																								
산림조합	SJ NPL 대부	2025년																								
저축은행	SB NPL 대부	2025년																								

# 시장 동향 및 향후 전망 | ③ 정책 관점



구분	최근 동향	향후 전망
정책 측면	코로나19 협약 추가 연장, 새출발기금 및 새도약기금 2026년 운영 지속	
주요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코로나19 피해 개인연체채무자 신용지원 협약 연장 (~25.12)</li> <li>② 새출발기금 협약 연장 (~26.12)</li> <li>③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24.10) 및 계도기간 종료 (25.4)</li> <li>④ 새도약기금 출범 (25.10)</li> </ul> <p><b>* 기타 주요 연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코로나19 피해 개인연체채무자(23.6) 및 새출발기금(24.1) 대상채권의 매각채널 확대 → 채무자 신청방식 외 자산유동화방식 매각 가능</li> <li>② 자산유동화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산보유자 요건 확대 → 전 상호금융업권의 자산유동화방식 매각 가능 (~24.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코로나19 피해 개인연체채무자 신용지원협약 추가 연장 (~26.12)</li> <li>② 새출발기금 협약 지속 (~26.12)</li> <li>③ 새도약기금 신용회복지원 협약 양수도 진행 (~26 하반기)</li> </ul>

# Contacts

## NPL Center

### 명본호 Partner

NPL Center 센터장

02-3781-1719

bon-ho.myung@pwc.com

### 임준일 Partner

02-709-6465

joon-il.im@pwc.com

### 이정섭 Director

02-709-8014

jeong-seob.lee@pwc.com

### 임형종 Director

02-3781-9636

hyung-jong.yim@pwc.com

### 조용준 Director

02-3781-9037

yong-jun.cho@pwc.com

## PF정상화 Center

### 김효건 Partner

PF정상화센터 센터장

02-3781-9313

hyogun.kim@pwc.com

### 오민규 Director

02-3781-9633

mingyu.oh@pwc.com



삼일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의 간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 및 지식전달을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구체적인 회계이슈나 세무이슈 등에 대한 삼일회계법인의 의견이 아님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간행물의 정보를 이용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삼일회계법인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본 간행물의 정보와 관련하여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삼일회계법인 전문가의 자문 또는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601F-RP-017

© 2026 Samil PwC. All rights reserved. PwC refers to the Korea group of member firms and may sometimes refer to the PwC network. Each member firm is a separate legal entity. Please see [www.pwc.com/structure](http://www.pwc.com/structure) for further details.